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2)¹⁾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I. 북미

[미국]

1. (2020년 3월 22일) 미국 Farm Policy News, ‘COVID19로 인한 미국 농업의 영향 및 대응’을 발표

세계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선언 이후 미국 농산물 선물가격 하락 폭이 커졌다. 곡물 선물가격은 옥수수 10%, 밀 2%, 대두 4% 하락하였으며, 연료 소비 위축으로 에탄올 생산량 감소가 옥수수 가격을 더 떨어뜨렸다. 한편, 외식 횡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비육우 선물가격이 13% 하락하였다.

수급 측면에서는, COVID-19는 생산 충격보다 소비 위축으로 미국 농업에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 사재기로 인한 미국 농산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었다. 단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COVID-19가 농가의 영농활동을 지연시키거나 억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식업에 미친 영향으로는, 자택 근무가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소비되는 식품은 증가하는 반면, 외식업에서 소비하는 식품은 감소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정부는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에 COVID-19에 대한 대응으로 총 500억 달러(약 62조 5천억 원

* huhduk@krei.re.kr

1) 이 글은 COVID-19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상황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TRA, 해외 각 언론사 보도자료 등 다수의 자료를 참고하여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지난 1편에 이어 이번 2편에서도 기존의 보완을 위해 지난 일자의 조치들 중 빠진 부분도 동시에 수록하였다.

규모)를 농가소득 및 가격안정을 위해 지원하였다. 미국 상품신용공사는 미국 농무부 산하로, 1933년 농가소득과 가격안정 지원과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인력측면에서는 임시 노동자(guest worker)가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도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H-2A 비자를 소유한 농업 종사자들은 멕시코로부터의 입국 금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COVID-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 280

2. (2020년 3월 27일) 미국 FAPRI, ‘COVID-19에 대한 식량안보 대응’ 발표

FAPRI는 COVID-19로 채소나 야채의 공급 차질이 우려되지만, 필수 농산물인 쌀, 밀, 옥수수 공급은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2007-2008년 식량 위기 때 식량안보를 위한 각국 정책으로 인해 가격 폭등을 부추긴 바 있다. 수출 제재로 필수 농산물²⁾의 시장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입국은 낮은 관세 추진에도 불구하고 비싼 원자재 가격과 시장 가격 상승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특히, 2007-2008년 동안 쌀 가격은 50% 이상 상승하였다.

2007-2008년 식량 위기 때처럼 COVID-19로 인한 주요 농산물 수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시리얼, 유지작물, 채소 수출을 4월 15일까지 제재 하길 하였고, 베트남은 쌀 수출을 전면 통제하였으며, 러시아는 밀 수출을 제재하였다.

각 국가별 식량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제재는 전 세계 식량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필수 농산물의 재고량 부족은 아직 없다. 하지만, 수요 대비 재고량(stock-to use ratio)은 식량위기 때보다 높다. 특히, 중국을 제외하고 2019년 수요 대비 재고량은 지난 20년의 중간값 수준이기 때문에 필수 농산물에 대한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필수 농산물 작황이 좋을 전망이다. 미국 농무부는 필수 농산물 중 밀과 쌀 생산량은 각각 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좋은 작황은 COVID-19로 인한 공급차질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농산물 수출은 주

2) 주요 식량 작물로 쌀, 옥수수, 밀, 콩 등을 포함.

요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세계 밀 수출 3%를 차지하는 카자흐스탄의 수출 제재, 밀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 베트남의 쌀 수출 제재는 필수 농산물 수입국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제재는 지양해야 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COVID-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 282

3. (2020년 4월) 미국 식량농업정책연구소, ‘COVID-19 미국 농업부문 영향 및 전망’ 분석

미국 식량농업정책연구소(PAPRI)는 2020년 4월 ‘Early Estimates of the Impacts of COVID-19 on U.S. Agricultural Commodity Markets, Farm Income and Government Outlays’를 분석·발표하였다. 2020년 거시경제전망을 기존 전망치보다 하향 전망하였다. 기존 전망치 대비 실질소비지출은 -5.0%, 식료품소비지출은 -2.5%, 유가는 -15.0%, 금리는 -0.5% 하향 조정하였다.

〈표 1〉 미국 거시경제전망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실질소비지출	-5.0%	-1.0%	0.0%	금리	-0.5%p	0.0%	0.0%
식료품소비지출	-2.5%	-1.0%	0.0%	휘발유 소비	-10.0%	0.0%	0.0%
유가	-15.0%	-5.0%	0.0%	경유 소비	-5.0%	0.0%	0.0%

출처: 식량농업정책연구소(PAPRI)

발표 자료에 의하면, COVID-19로 인해 대부분의 2020/21년 곡물가격이 5~10% 하락하고, 2020년 축산 가격은 8~12%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9/20년 밀은 COVID-19 확산 이전에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영향이 미미하지만, 2020/21년 밀 가격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축산물 가격은 소비위축으로 크게 하락할 전망이지만, 2021년에 COVID-19 충격은 완화되어 0.5~2%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2〉 COVID-19 여파로 인한 가격변화

마케팅 연도	2019/20	2020/21
옥수수	-8.2%	-9.4%
대두	-4.4%	-6.5%
밀	-0.9%	-5.3%
면직	-6.1%	-10.1%
회계 연도	2020	2021
소	-11.5%	-2.1%
돼지	-9.1%	-1.0%
닭	-7.8%	-1.2%
우유	-8.8%	-0.5%

출처: 식량농업정책연구소(FAPRI)

한편, 곡물 가격 하락으로 정부 지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에탄올 소비 감소로 2021년 옥수수에 대한 정부지출은 10억 달러로 그 규모가 다른 작물(대두 2억 달러, 면직 6억 7천만 달러)에 비해 크다.

2020년 농가소득은 곡물(119억 달러)보다 축산(202억 달러) 농가소득이 더 낮아지지만, 2021년 곡물 농가소득(73억 달러)은 축산(26억 달러)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회계연도 2021년 곡물 농가소득은 마케팅 연도 2020/21년 가격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락 폭이 큰 반면, 축산은 사료값 하락, 유가하락에 따른 영농자재비 하락, 금리하락으로 인해 2021년 축산 농가소득 하락 폭이 작아진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모음」, 2020.7.20., p.p. 283-284

4. (2020년 4월 14일) 미국 Project Syndicate가 ‘포스트 COVID-19 농업 변화’ 분석·발표

미국 Project Syndicate는 2020년 4월 14일 ‘Agriculture After the Pandemic’을 발표하였다. COVID-19로 인한 경제 불안 심리는 각 국가의 농업분야를 포함하여 보호주의가 팽배해져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의존하던 서부 유럽은 국경이 폐쇄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미국의 농업에서도 기간제 멕시코 근로자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COVID-19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COVID-19 이후 농업 활동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 자동화 시스템 도입은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 수급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드론, 자동화 트랙터, 파종 및 수확에 특화된 로봇 등 농업 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COVID-19로 인해 농산물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급망 다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프리카의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Plan)은 농업의 노동력 증대를 2030년까지 100만 명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노동집약적이고 농경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NDP는 관개시설 확충 투자, 생산성 향상, 수출국가 확대를 자동화 시스템과 함께 발전시킬 계획이다.

COVID-19 이후 많은 국가들의 정책입안자와 산업 종사자는 자동화 시스템 발전 추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인력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것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83-284

5. (2020년 4월 17일) 미국 정부의 COVID-19 대응 농업부문 지원 정책을 홍보

2020년 4월 1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COVID-19 대응 농업부문에 19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농업분야 지원 중 미국 코로나 지원금(Coronaviurs Relief Bill)으로 2조 2천억 달러 지원하는데, 이는 총 지원 규모 대비 0.86% 수준이다.

미국 상원은 COVID-19에 대응하여 595조 원의 추가 지원 예산안을 통과(2020.4.22.)시켰다.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160억 달러를 COVID-19로 실질 피해를 받은 농업인에 지원하며, 미국 농무부는 지역단체를 통해 30억 달러 규모의 신선식품, 유제품, 육류를 구매³⁾하고, 푸드뱅크, 지역커뮤니티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미국 농무부는 지역 사회 및 푸드뱅크 요청이 있으면 8억 7,330만

3) 신선식품, 유제품, 육류를 1억 달러씩 매달 구매 예정

달러 규모의 식료품을 구매하고 푸드뱅크에 제공할 예정이다. 가족우선 COVID-19 대응 긴급법(FFCRA)과 COVID-19 지원, 구제, 경제안전법(CARES)에 의거하여 최소 8억 5천만 달러를 푸드뱅크 행정 비용 및 농무부 식료품 구매에 지원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83-284

6. (2020년 4월 22일) COVID-19로 인한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증액

미국 농업부는 'USDA Increases Monthly SNAP Benefits by 40%(2020.4.22.)'을 통해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한다고 발표하였다. 내용에 따르면, 미국 농업부는 COVID-19 여파로 실직과 기아에 고통받고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월 20억 달러의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의 40%를 증액하여 저소득층과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민⁴⁾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기존에 매월 45억 달러의 영양 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매월 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긴급 지원금이 제공된다.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성인 2명, 아동 3명에 소득이 없는 5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최대 768달러를 지원받지만, 신고대상 수입 및 다른 요인으로 인해 5인 가구의 평균 지원금은 매월 528달러이다. SNAP 혜택을 받는 모든 가구는 기존에는 최대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SNAP 지원금 증액을 통해 모든 가구는 최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긴급 지원금을 통해 평균 5인 가구에 추가적으로 매월 240달러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FFCRA)에 의거한 공공 건강 긴급 지원으로 매월 지속적으로 SNAP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83-284

4) 미국 50개 주와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워싱턴 D.C.를 모두 포함

7. (2020년 4월 28일) 미국 JDSUPRA, 'COVID-19 식품지원프로그램(CFAP)' 발표

미국 농업부는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 공급망 유지와 식량안보 지원 목적으로 식품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는 최소 19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으로 직접지원과 상품구매 방식으로 나누어 지원된다. 직접지원은 160억 달러로, 생산자 그룹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식품 공급망 차질로 인한 손실에 대한 금전 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2020년 1월 이후 최소 5% 가격 하락이 발생한 농산물에 지급되며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5% 이상 하락하고 있다.

〈표 3〉 품목별 예상 지원금 규모

품목	금액
축산	96억 달러
곡물	39억 달러
특용작물	21억 달러
기타	5억 달러

지원금 수준은 두 가지 계산 방식을 통해 결정된다. 1)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발생한 가격 손실의 85%를 지원, 2) 2020년 4월 15일부터 다음 두 분기까지 예상되는 손실의 30%를 지원한다. 품목당 12만 5천 달러, 농가당 25만 달러로 지원이 제한되고, 전체 소득에서 농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75%에 못 미쳐 조정된 총소득이 90만 달러이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식품지원프로그램에서 농가 직접지원은 2020년 5월 초부터 등록이 시작되고 2020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업부의 상품신용공사(CCC)는 2020년 7월에 14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보충할 것이다.

상품구매 지원은 30억 달러이다. 소비자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농식품 위주의 식품 박스를 푸드뱅크나 지역 단체에 제공하는 것으로, 단, 신선품, 유제품, 육류는 미국 내에서 생산 및 가공된 것을 대상으로 구매 지원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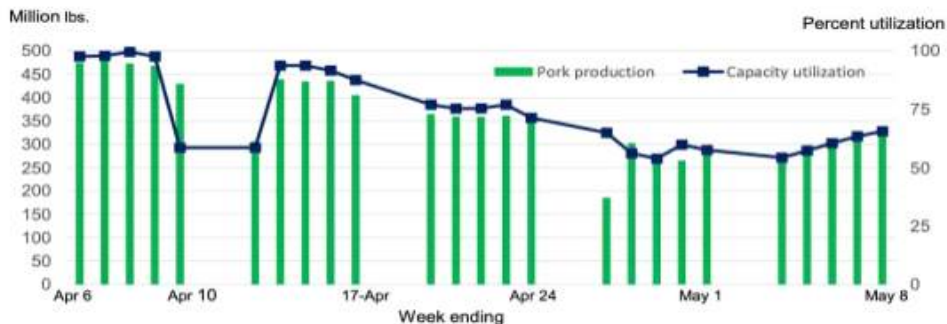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83-284

- 원문 출처: <https://www.jdsupra.com/legalnews/usda-s-coronavirus-food-assistance-32446/>

8. (2020년 5월 19일) COVID-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 현황 및 전망

COVID-19는 2020년 4월 초 미국 돼지 가공처리 시설의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인해 돼지고기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30일 동안 미국 돼지 가공처리 시설 가동률은 75% 수준이다. 2020년 4월 돼지 도축과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고, 2020년 5월 초 가공처리 시설 가동률은 다소 상승하여 5월 첫째 주(2020.5.1.~5.8.) 가동률은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한 60.3%였다. 여기에서는 미국 Farm Policy News의 ‘A Closer Look at U.S. Pork Exports from USDA’s Economic Research Service(2020.5.19.)’의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그림 1〉 미국 돼지 가공처리 시설 가동률



출처: USDA-AMS.

2018년 8월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중국 돼지고기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중국 수입 수요가 증가하여, 2020년 1분기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20억 파운드였다. 미·중 무역마찰로 중국의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 비중이 높았으나, 2020년 1월 무역합의로 미국산 돼지고기 비중은 11%p 상승한 18%였다.

중국발 돼지고기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COVID-19 여파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돼지고기 생산 차질과 전 세계 소비 위축으로 미국 돼지고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농업부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미국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기보다 1억 파운드 감소한 16억 파운드, 4분기에는 18억 파운드

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88-289

- 원문 출처: <https://farmpolicynews.illinois.edu/2020/05/a-closer-look-at-u-s-pork-exports-from-usdas-economic-research-service/#>

9. (2020년 5월 29일) USDA-ERS의 COVID-19로 인한 미국 농산물 무역 영향 전망

미국 USDA-ERS는 '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2020.5.29.)'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2020년 미국 농산물 수출은 1,365억 달러로 전망하며, 이는 COVID-19 이전인 2월에 발표된 전망치보다 30억 달러 낮아진 수준이다. 대두의 경우, 브라질의 대두 수출 증가로 COVID-19 이전 전망치 수준보다 19억 달러 줄어든 165억 달러로 전망한다. 면화의 경우에는 COVID-19로 인한 해외 수요 감소로 COVID-19 이전 전망치 수준보다 10억 달러 낮아진 52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옥수수의 경우에는 충분한 수출물량 채고와 에탄올 연료 소비위축으로 COVID-19 이전 전망치 수준보다 5억 달러 줄어든 8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밀의 경우, 충분한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고 미국 밀 가격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COVID-19 이전 전망치 수준보다 3억 달러 줄어든 61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축산과 유제품의 경우에는 돼지고기와 유제품의 수입 수요 증가가 쇠고기와 닭고기 수입 수요 감소를 상쇄하면서 COVID-19 이전 수준과 비슷할 전망이다.

2020년 미국 농산물 수입은 1,302억 달러로 전망하며, 이는 COVID-19 이전인 2월에 발표된 전망치보다 23억 달러 줄어든 수준이다. 맥주, 신선과실, 신선채소와 같은 원예 작물의 수입 감소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2020년 무역수지는 2019년보다는 개선되겠지만, COVID-19 이전에 발표된 2020년 무역수지보다는 수입액 감소 폭보다 수출액 감소 폭이 더 커 악화될 전망이다.

〈표 4〉 미국 농산물 무역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전망치	
				2020.2월 발표	2020.5월 발표
수출	1,402	1,434	1,355	1,395	1,365
수입	1,191	1,275	1,309	1,325	1,302
무역수지	211	159	46	70	63

출처: USDA-ERS.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89-290

- 원문 출처: <https://www.ers.usda.gov/webdocs/outlooks/98517/aes-112.pdf?v=8070.4>

10. (2020년 6월) COVID-19로 인한 미국 농식품 산업 영향 분석

여기에서는 미국 Council for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CAST)의 ‘Economic Impacts of COVID-19 on Food and Agricultural Markets(2020.6.)’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전례에 없던 COVID-19 전염병 확산으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WTO는 V형, U형, L형자의 세 가지 시나리오의 COVID-19로 인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제시하였다. 각 유형별로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4.8%, -9.2%, -11.1%로 전망하고,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4.2%, 8.1%, 2.8%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 무역은 COVID-19 사태 이전부터 미·중 무역마찰로 인해 농업에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고, COVID-19 이후 자국 산업 보호 및 이동 제한과 소비 위축으로 미국 농산물 수출은 더 감소할 것이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으로 미국의 농업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지만, COVID-19로 인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 제한으로 전 세계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 간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COVID-19로 인한 공급망 차질은 식품업과 소매업에 영향을 미친다, COVID-19 사태로 집에서 육류를 소비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식품 서비스업은 크게 위축된 반면, 식료품점 4월 매출은 13% 증가하였다 육류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산림 및 목재 분야에도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

된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COVID-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공급 불가변성은 식품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소비자들이 인접 지역의 COVID-19와 관련된 정보를 접했을 경우와 COVID-19 관련 장려책을 지원받았을 때 사재기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농식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나 이동 제한으로 농식품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할 경우 사재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COVID-19로 인한 사재기 현상, 식료품 재고 관리, 소득 감소,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소비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 위축으로 COVID-19 기간 동안 우유는 370만 갤런을, 달걀은 10만 7천 개를 폐기 처분하였다. COVID-19로 인해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의 농산물 폐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다가오는 곡물 추수 기간에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폐기물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COVID-19는 미국 식량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20년에는 2018년보다 1,700만 명 많은 5,400만 명의 미국인이 식량안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 그룹의 경우에는 식량안보 취약율이 높아져 2020년 어린이 대상 식량안보 취약자 수는 2018년보다 700만 명 많은 1,80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OVID-19로 인한 소비 위축은 미국 곡물 시장에 중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쳐 소비 위축으로 인한 글로벌 곡물 재고량이 증가하고, 가격 하락으로 수익률을 감소시키고 있다. 미국 식품농업정책연구원(FAPRI)에 따르면, 2020년 곡물(△47억 달러), 대두(△21억 달러), 밀(△4억 달러), 면(△6억 달러), 기타 곡물(△41억 달러) 소득은 감소하고, 축산업의 경우, 2020년 소(△96억 달러), 돼지(△22억 달러), 닭(△0.5억 달러), 우유(△40억 달러), 기타 축산(△4억 달러)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농가 유동성 악화로 1~2년 내 농가 파산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 종사자의 일시적인 해고와 높은 실업률은 농업 고용 인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큰 반면, 농업 외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했을 경우 다시 농업분야로 안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비자(H-2A)에 대한 제재 완화로 농업인력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농촌의 COVID-19 확진자 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농촌지역 내 범죄자, 양로시설, 육류 유통업체, 저소득층 거주자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에 취약한 농촌 지역의 병원이나 요양시설 관리

감독, 원격의료지원 시스템 확대 및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교육 확대와 같은 헬스케어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COVID-19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장기적인 대비와 함께 학계와 정책 입안자의 논의를 통해 포스트 COVID-19를 대비하여야 한다. COVID-19로 인해 농산물 서플라이 체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농산물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새로운 농업기술의 제도개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 기반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농촌 헬스케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농업인력 확보 등 장기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91-293

－ 원문 출처: <https://www.cast-science.org/wp-content/uploads/2020/06/QT-A2020-3-COVID-Impacts.pdf#page=5>

<https://www.cast-science.org/wp-content/uploads/2020/06/Ag-quickCAST-QTA2020-3-COVID-Impacts.pdf>

11. (2020년 2년 6월 9일) USDA와 FDA,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식량 공급 체인 보호 강화에 관한 각서를 체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안전하고 충분한 양의 식량 공급 체인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미국 농업부(USDA)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5월 19일 대통령령 13917호⁵⁾를 실행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과일 및 채소 가공시설을 포함한 FDA 감독에 의해 식품시설 가동 중단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각서⁶⁾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5) COVID-19에 관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 적용되는 사이에서 국방 생산 법(Defense Production Act)에 근거하여 미국 국민에게 단백질을 계속 공급하기 위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가금육 처리장이 조업을 계속할 것을 명하는 대통령령. 이 대통령령이 농업장관이 육류 및 가금육 처리장 이외에 특정 식량 공급체인 공급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번의 각서에 따른 USDA의 관할 밖이며 FDA의 관할 하의 식품 시설을 인정할 때의 합의 사항이 정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トランプ大統領、食肉・食鳥処理場の操業継続を命じる大統領令を発出(米国)」(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91.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각서에는 FDA가 수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6개 항목, USDA에 대해 3개 항목, 두 기관의 합의 사항에 대해 2개 항목을 명기하고 있다. 이 각서의 발효에 따라, FDA 관할 하에 있는 식품 제조, 가공, 포장, 보관을 하는 국내 식품 관련 시설 및 식품 재배나 수확을 제공하는 곳에 대해, USDA가(대통령령 13917호에 의해 대통령이 농업부장관에게 위임한) 국방생산법에 기초한 권한 행사를 위한 절차가 작성된다.

발표는 “미국 내에서 재배된 많은 과일·채소를 냉동 시설과 통조림 공장으로 보내는 수확 전성기를 맞고 있어, 이 각서에 따른 이들 시설의 조업을 담보하는 것은 중요한 대처이다. 또 FDA는 앞으로도 주와 지방 규제 당국과 협력할 것, 식품 공급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에 대응하고, 국방생산법에 의거 추가 조치가 강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주, 지방 등 규제 당국이나 공중·위생 담당 부서, 산업 생산품 부문, 보건복지부 질병대책·예방센터(CDC)와 노동성 노동안전·위생청(OSHA)등 관계자와 협의한 후, 노동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시설 재가동 및 유지를 위한 길을 표시하는 것”이다.

또 발표에서는 “USDA 또는 FDA 중 어디에서 규제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식량·농업부문은 매우 중요한 인프라이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CDC와 OSHA의 가이드라인에 준거하여 조업을 계속하는 것은 공중위생을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 대한 식량 공급을 위해 매일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출처)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8月號

6) 각서(PDF):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mou-between-fda-usda-dpa.pdf>)

12. (2020년 6월 9일) 외식 지출액, 2019년은 과거 최고이며, 2020년 2월 이후 급락

미국 농업부 경제조사국(USDA/ERS)이 6월 2일에 공표한 「Food Expenditure」에 따르면, 2019년 식품 지출액(명목 기준, 알코올 음료 제외)은 가정 내 식품 지출액이 7,994억 달러(86조 3,352억 엔=966조 908억 원⁷⁾: 1미국 달러=108엔=11.19원), 가정 외식품(외식)지출액이 9,694억 달러(104조 6,952억 엔=1,171조 5,392.88억 원)로 모두 전년을 웃돌아, 과거 최고를 갱신하고 있다(그림 2).

〈그림 2〉 미국의 식품 지출액 추이



주 1: 실질베이스는 1988년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고려한 것임.

주 2: 알코올 음료를 포함하지 않음. 세, 팁 등은 포함.

주 3: 자가 소비된 식품, 기여된 식품 등 추정 가치 분도 계상되어 있음.

자료: USD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 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8月号에서 재인용

또 물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 기준도 완화되면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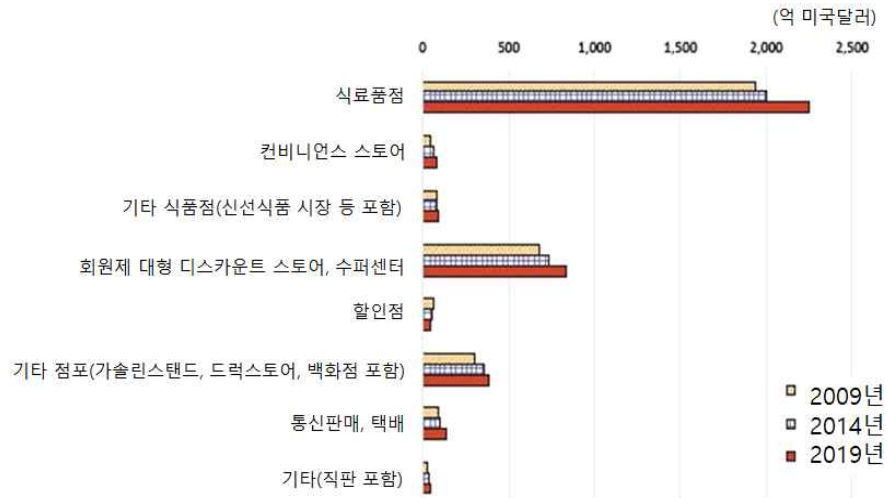
2019년 가정 내 식품 지출액(실질 기준)을 업종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많은 '식료품점'은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여 12.6% 증가하고, 비중은 58%(2014년과 동일한 수준)(그림 3)이다. 이어 비율이 높은 '회원제 할인점, 슈퍼 센터⁸⁾'는

7) 1엔=11.19원, 1달러=1,208.52원 적용

8) 비식품의 할인점에 식품 슈퍼나 약국 등을 조합한 대형 점포

2014년 대비 13.6% 증가하였고, 비중은 22%(2014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또한 ‘통신 판매·택배’는 비중이 3%로 작지만, 2014년 대비 36.0% 증가하는 등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3〉 미국의 업태별 가정 내 식품 지출액 추이



주 1: 실질베이스(198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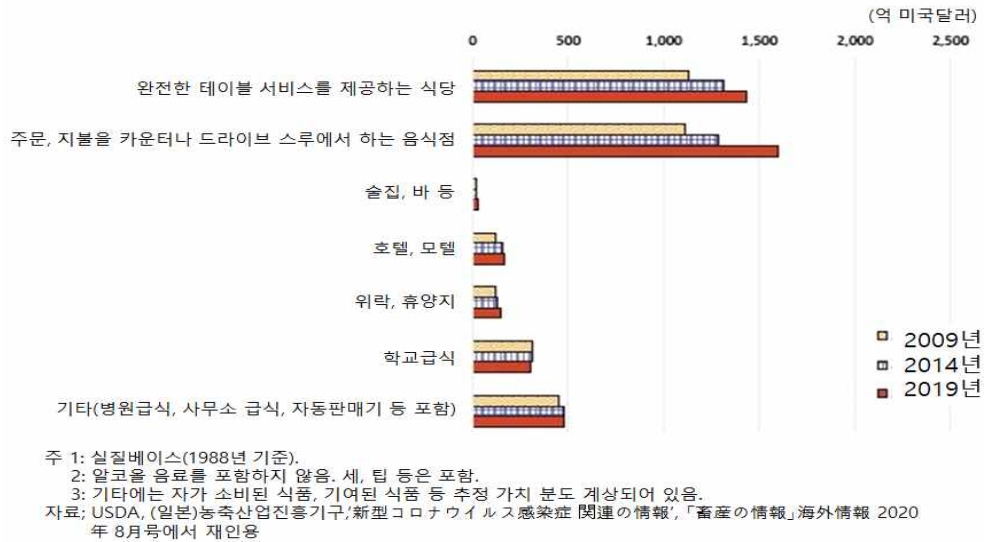
2: 알코올 음료를 포함하지 않음. 세, 팁 등은 포함.

3: 기타에는 자가 소비된 식품, 기여된 식품 등 추정 가치 분도 계상되어 있음.

자료: USD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 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 年 8月号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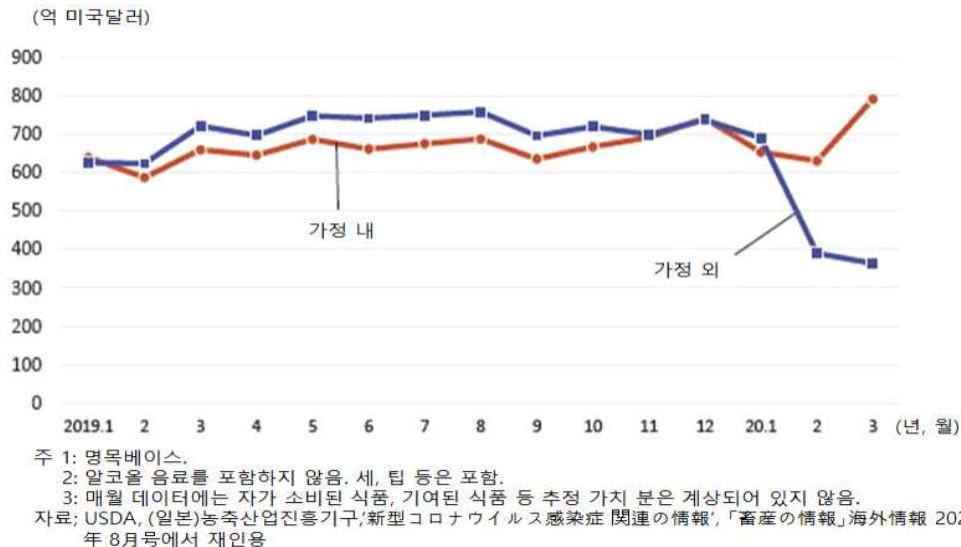
2019년 가정 외 식품 지출액을 업종별로 보면, 패스트푸드점 등의 ‘주문, 지불을 계산대나 드라이브 스루에서 하는 음식점’은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여 24.7% 증가하고, 비중은 39%(2014년 대비 4포인트 증가)로 가장 비중이 많은 업태가 되었다(그림 4). 이어 비율이 높은 ‘완전한 테이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은 2014년 대비 9.2% 증가하였지만, 비중은 35%(2014년 대비 1%포인트 감소)로 2번째로 많은 업태로 처졌다.

〈그림 4〉 미국의 업태별 가정 외 식품 지출액 추이



최근의 월별 식품 지출액(명목 기준)을 보면, 2020년 1월까지의 대부분의 월에서 ‘가정 외’가 ‘가정 내’를 넘었으며, 외식 비율(식품 총 지출액 중 가정 외 식품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대 전반에서 추이하여 왔다(그림 5).

〈그림 5〉 미국의 식품지출액 추이(월별)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으로 각 주에서 외출 제한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2월 및 3월의 '가정 내'지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각각 7% 증가, 20% 증가하였지만, '가정 외'지출액이 각각 37% 감소, 50% 감소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체 지출액도 16% 정도 감소하였다.

그 결과, 2월 외식 비율은 38%(전년 동월 대비 14포인트 감소), 3월은 31%(전년 동월 대비 21포인트 감소) 되었다. 5월 이후 외출 제한을 완화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가정 외'는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어디까지 회복할지, 향후 동향이 주목된다.

(출처)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8月號

13. (2020년 6월 12일) 식육 처리장, 식조 처리장의 처리 능력, 전년 같은 시기의 95% 이상까지 회복

이전의 보고⁹⁾에서 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감염 확대에 의한 조업 정지, 일시 휴업 등이 이루어졌던 미국의 식육·식조 처리장의 처리 능력은 전년 같은 시기의 95% 이상까지 회복하였다.

미국 농업부(USDA)는 6월 9일 퍼듀 농업부 장관이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인 식육·식조 처리장이 안전하게 재개하고 있음을 치하하였다는 보도 자료를 발송하였다.

이 보도 자료에 따르면, 6월 9일 아침 시점에서 소, 돼지, 브로일러의 처리 능력은 모두 전년 같은 시기의 95% 이상(쇠고기 작업장은 동 98%, 돼지고기 처리장은 동 95%, 식조 처리장은 동 98%)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 미국의 식육·식조 처리장은 "보건복지부의 질병대책·예방센터(CDC)와 노동부의 노동안전·위생청(OSHA)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준수를 명령하였는데, 국방생산법에 근거한 대통령령¹⁰⁾에 의해 안전성을 담보하고¹¹⁾ 조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9)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米国の大手食肉パッカー、相次ぎ操業停止',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號(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78.html)

10)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トランプ大統領、食肉・食鳥処理場の操業継続を命じる大統領令を发出(米国)',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號(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91.html)

다.

더욱이 퍼듀 장관은 이 보도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식육·식조 처리장이 안전한 방법으로 재개하고, 미국의 생산자와 목장주가 자신들의 생산물을 시장에 확실하게 출하할 수 있도록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하였다. 국민을 뒷받침하는 식육·식조 처리장 종업원, 기업, 현지 당국이 신속하게 조업을 재개한 것은 거국적으로 치하하기에 어울리며, 식육·식조 처리장에 식량을 의존하고 있는 수백만의 미국인에게 몹시 희망적으로, 다양한 식육을 다시 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미국 식육 시장은 식육·식조 처리장 가동률 저하와 레스토랑 휴업 등에 따른 수급 양면에서의 혼란에서 도매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4월 도축 마릿수를 보면, 소가 전년 동월 대비 78.5%, 돼지가 동 88.9%, 브로일러가 동 98.8% 각각 감소하였지만, 식육·식조 처리장 가동률을 회복함으로써 5~6월 이후의 공급 면에서의 불안이 불식되고 시장 안정화, 진정이 기대된다.

(출처)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8月號

14. (2020년 6월 29일) 농업계는 공동 1단계의 미·중 경제·무역협정을 지지하는 서한을 발표(미국)

6월 16일 미국 농업 단체와 기업을 포함한 약 200개 관련 조직들이 연명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농업부(USDA) 퍼듀 장관 등에게 제1단계 미·중 경제·무역 협정(이하 ‘협정’)을 지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협정이 체결된 데 대한 미국 정부 당국에 감사의 말부터 시작되며, 미국 농업 단기 및 장기적 성공과 성장에 협정은 필수적이며, 농업부문에서의 수 백만의 미국인 일자리 유지에도 공헌하고 있다는 미·중 무역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또 “현재 미국산 농산물의 중국 수출 페이스는 협정 노력 목표를 밑도는 페이스이긴 하지만, 미국 농가, 목장주, 농촌 커뮤니티는 중국이 향후 수입 속도를 가속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데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라며 중국의 미래에

11)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食肉・食鳥処理場の操業維持に関する大統領令に基づき, 米農務省が対応を講じる(米国)’,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號(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95.htm). (참고) USDA보도 자료(<https://www.usda.gov/media/press-releases/2020/06/09/americas-meatpacking-facilities-operating-more-95-capacity-compared>)

대한 기대감을 말하였다.

2020년 미국 농업 총소득은 지난해에 비해 9%에 해당하는 110억 달러(1조 1,880억 엔=13조 2,042억 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협정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 및 식품의 대 중국 수출 측면에서는 과거에 없던 뛰어난 호기라 할 수 있다. 미국 농업의 고용을 증가시켰고,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물류, 중요한 항만 네트워크 유지 등 서플라이 체인 전체 경제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였다.

또 “중국은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3번째 미국산 농산물 수출국으로,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산 계급은 미국에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서한에서 미·중 무역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2020년 2월 14일 발효된 협정에 따른 서한에서, 협정의 영향으로 알려진 항목이나 기타 지금까지 중국 수출 접속이 개선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옥수수

중국은 세계 수요의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시장이다. 미국산 옥수수는 2013년 후반부터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¹²⁾) 문제로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90% 이상에서 10%미만으로 감소하면서, 협정에 의한 GMO 취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두

2017년에는 대두 수출액이 139억 달러(1조 5,012억 엔=16조 7,984.3억 원)

12)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전자 재조합기술(Biotechnology)로 생산된 농산물로, 미국 몬산토사가 1995년 유전자변형 콩을 상품화하면서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한 개념이다. 대표적인 GMO로는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라고 많이 부르지만 공식 용어는 LGMO(Liv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이다. 반면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비유전자변형(Non-GMO)'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이란 특정 작물에 없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결합시켜 새로운 특성의 품종을 개발하는 유전공학적 기술을 말한다. 즉,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추위,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등에 강한 성질 등 유용한 유전자를 취하여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물 A가 특정 병충해 B에 취약할 경우 동종 또는 이종의 작물에서 병충해 B에 강한 유전자를 추출, 식물 A에 결합시켜 또 다른 품종 A1을 개발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선택적 증식 >이종교배 >성전환 >염색체 변형 >유전자 이전 등 생명공학과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규모로, 중국에 대한 미국산 농산물 수출액의 52%를 차지하였다. 그 뒤 2018년 이후의 보복 관세로 수출 물량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2020년 수출량은 증가 경향에 있다. 협정에 따른 농산물 구매 목표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가축 사료

협정에 따른 가공용 미국산 보리, 사료용 건조 티모시, 알팔파 덩어리와 큐브, 아몬드 밀 덩어리와 큐브 등 가축 사료 수출 해금과 옥수수 주정박(DDGS¹³) 등의 가축 사료를 다루는 수출 시설 목록 갱신이 이루어졌다.

쇠고기

2017년에는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였으나, 그때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협정으로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 수입 제한이 철폐되었고,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쇠고기를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하여 사용이 허용된 3가지 종류의 성장 호르몬(제라놀 초산 트렌보론, 초산 멜렌게스테롤)에 대한 중국에서의 최대 잔류 기준치 설정, 중국 수출시설 목록 갱신 등 수출 접속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2019년에는 최대 47%인 보복 관세를 현재에는 12%까지 삭감되고 있는 등 협정에 의한 혜택이 크다.

돼지고기

중국인 미국산 돼지고기에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협정에 의해 중국 수출 시설 목록 갱신이 이루어졌고, 2019년에는 최대 72%이던 보복 관세를 현재는 33%까지 삭감되어 있다. 보복 관세로 중국 시장에서 미국산 점유율은 감소하면서, 협정에 따른 저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럽과 브라질 등 경쟁국과 경쟁에서 중요하다.

가금육

협정에 따라 미·중 양국은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¹⁴) 또는

13) DDGS(Dried Distiller's Grain with Solubles). 양조 또는 에탄올 제조의 부산물로 우리말로는 주정박이라고 한다. 주정박이 사료적 가치로 인해 기준(옥수수 및 대두박)의 대체물로 조명을 받고 있다. 고단백 DDGS의 조단백질 함량(45%)은 대두박의 조단백질 함량(47.5%)과 비슷하고, 고단백 DDGS의 총 라이신 및 트립토판 함량은 훨씬 적다. 고단백 DDGS는 성장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대두박을 100% 대체 가능하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대명AG, <https://blog.naver.com/qkdncl160317/221562169735>)

14)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HPAI). 조류인플루엔자(avian flu)란 닭이나 오리나 같은 가금류

병원성 뉴캐슬병¹⁵⁾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질병 발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부터 수출을 계속하는 것을 인정하는 지역주의(地域主義) 협정에 서명하였다. 중국산 가금육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해당 질병의 청정화가 확인된 후에 이 지역주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유제품

중국은 미국 낙농업계의 장기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정에 의한 인간용 우유 한외여과 분말(牛乳 限外濾過¹⁶⁾ 粉末)의 수출 해금에 이어지는 중국 국내 기준 공표 및 중국 수출 시설 목록 갱신이 이루어졌다.

또는 야생조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Virus)의 하나로서, 일종의 동물전염병이다.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 B, C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A, B형이 인체감염의 우려가 있으며, 그 중 A형만이 대유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표면에는 hemagglutinin(HA)과 neuraminidase(NA)라는 두 가지 단백질이 있는데, HA는 18종이, NA는 11종이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두 가지 단백질의 조합에 따라 모두 198종류(=18×11)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존재하게 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의 콧물, 호흡기 분비물, 대변에 접촉한 조류들이 다시 감염되는 형태로 전파되고, 특히 인플루엔자에 오염된 대변이 구강을 통해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류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변 등에 오염된 기구, 매개체, 사료, 새장, 옷 등은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으로 구분된다. 철새들이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철새들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자연 병원소로서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철새들의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닭이나 오리나 같은 가금류에 옮겨졌을 때에는 고병원성을 보일 수 있다. 특히 닭의 경우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감염이 되면 호흡곤란 등을 일으켜 폐사하게 된다. 폐사율은 병원성에 따라 다른데 병원성이 높은 경우 폐사율이 높아지게 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식품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

- 15) 뉴캐슬병(Newcastle disease). 닭에 발생하는 병이다. 파라믹소군(群)에 속하는 뉴캐슬병 바이러스에 의하여 일어나며, 닭에게는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다. 한국에서는 1926년부터 발생되어 오늘날까지 닭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폐사율(斃死率)이 높고 전염성도 강하며, 주로 호흡기증세와 신경증세, 때로는 소화기 장애까지 일으키는 법정전염병이다. 이 병은 병원성이 강한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악성 아시아형과 병원성이 약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아메리카형이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2년 주기로 크게 발생한다. 이 병에 걸리면 원기쇠약·호흡기증세·신경증세·산란을 저하 등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아시아형은 원기쇠약·녹색설사·산란을 저하·호흡기증세가 생기며, 폐사율은 일령에 관계없이 100%이다. 아메리카형은 원기쇠약·녹색설사·개구호흡·연란(軟卵) 및 산란을 저하가 일어나며, 며칠 경과하면 회복하기 시작하나 목이 굵어지고 다리마비 등의 신경증세를 나타내는데, 폐사율은 아시아형에 비해 낮다. 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비동화(非動化) 백신이나 생독(生毒) 백신을 사용하며, 병아리 때의 기초 백신 접종과 어느 정도 성장한 후 정기적으로 보강접종(補強接種)을 하면 예방할 수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 16) 한외여과(ultrafiltration, 限外濾過). 막분리 기술방법의 하나이다. 큰 용질분자를 작은 용질분자나 용매 분자로부터 체로 분리하는 분자수준의 여과이다. 막분리 기술은 보통여과, 정밀여과, 한외여과, 역삼투 등으로 분류된다. 분리하는 물질의 크기에 따라 보통여과는 10μm까지, 정밀여과는 30nm까지, 한외여과는 2nm까지, 그 이하는 역삼투의 관계에 있다.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등 합성폴리머로부터 만들어진 구멍이 없는 막을 이용하여, 가압에 의하여 소분자를 침투시킨다. 고분자용액의 농축, 탈염, 분획 등에 이용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영양학사전, 채범석, 김을상, <https://terms.naver.com/>)

그러나 미국산 유제품에 대하여 부과된 보복 관세는 유지되었다.

애완동물 사료

협정에 의하여, 가금육 유래 재료를 함유한 애완동물 사료 제품 수입 해금과 반추 동물 유래 재료를 함유한 애완동물 사료 수입 제한이 철폐되었다.

협정에서 합의된 조항 가운데 이미 실시된 조항과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항이 존재한다. 미국 농업분야에 따라서는 협정의 혜택에 농담(濃淡)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등의 영향으로 중국이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미국에서 농산물과 공업제품 등을 구입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페이스로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미·중 간에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미국 농업계로서는 협정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산 농산물 수출국을 확보하고, 향후 전망을 조금이라도 밝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의사가 느껴진다.

또한 중국의 해관총서(세관)는 6월 21일 미국의 식육 대기업 패커인 타이슨 사 스프링데일 공장에서 COVID-19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공장에서 닭고기 수입을 중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은 홍콩에서 도입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한 것에 대한 대항 조치로서 돼지고기,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의 일부 수입 중단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6월 24일 USDA와 미국 식품안전·의약국(FDA)은 여러 외국의 COVID-19에 관련된 식품 수입 제한은 과학에 근거한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협정 합의 이행에 대해서는 정치적 과제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이 혼재하며,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 향후에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링크))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米中經濟貿易協定の第1段階の合意と農業団体の声明(米国)」(令和 2年 1月 23日発)’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00.html)

(출처)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8月號

15. (2020년 7월 11일) COVID-19로 인한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산물 소비자 물가지수 영향

여기에서는 미국 Columbia Daily Tribune의 ‘COVID-19 causes food prices to move in opposite directions for farmers and consumers(2020.7.11.)’ 내용을 소개 한다.

미국 농업부에 따르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5% 하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노동부 통계국에 따르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 동안 4% 상승하여 최근 들어 가장 높게 상승한 수치이며, 동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0.1% 상승하였다.

COVID-19 여파는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를 상승시켰지만 농가 판매가격지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행태가 바뀌면서 식료품점에서의 소비는 증가한 반면, 외식 횟수가 크게 감소하여 소매업자들은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였다. 육류 유통업체 종사자들의 COVID-19 전염이 증가하면서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공급량이 감소하여 육류 가격이 상승하였다. 최근 육류 유통업체 공급망 작동률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육류 농가판매가격지수와 육류 소비자물가지수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바이오에탄올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낮아졌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경기회복을 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며, 소비자의 소득 감소로 농산물 지출 감소가 지속되면서 값싼 식품 소비를 더 선호하게 되는 소비행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봄에 소비되지 않았던 옥수수의 재고량 증가가 2020년 수확기까지 지속된다면 곡물 가격 하락폭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29 (2020.7.20.)

－ 원문 출처: <https://www.columbiatribune.com/business/20200711/covid-19-causes-foodprices-to-move-in-opposite-directions-for-farmers-and-consumers>

II. 남미

[브라질]

1. (2020년 6월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에 따른 육류 검사에 미치는 영향(제3회 보고)

브라질 농목식량공급부의 농목방역국 동물제품검사부(DIPOA/SDA/MAPA)는 6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대에 따른 연방검사서비스(SIF)의 검사에 대한 영향에 대해 3차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이 가운데 2020년 1~5월 도축장에서의 검사 상황 및 도축장의 정지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동물성 제품검사와 위생인증은 2020년 3월 20일 정령 10282호에 의해 국민의 생존, 건강, 안전을 위해 불가결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2020년 4월의 도축장에서의 검사 상황

브라질에서는 주를 초월한 거래와 수출되는 동물 제품의 경우에는 SIF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20년 4월에 검사된 소 개체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4% 감소하였다(표 5).

또한 소에 대해서는 COVID-19가 브라질에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전인 1, 2월에도 전년을 밀돌았다. 돼지에 대해서는 동 0.2% 감소로 거의 전년 수준, 가축에 대해서는 동 1.4% 증가로 전년을 조금 웃돌았다.

〈표 5〉 2020년 식육처리장에서의 SIF 검사 상황

단위: 천 마리

	1월		2월		3월		4월	
	검사수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	검사수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	검사수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	검사수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
소	1,814	15.4	1,742	9.6	1,796	7.6	1,614	19.4
돼지	3,222	3.4	3,117	0.6	3,460	9.8	3,221	0.2
가금	473,396	2.2	410,879	2.0	482,882	13.0	445,473	1.4

자료: DIPOA.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년 8월호에서 재인용

5월은 집계 중이지만, 일부 도축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한편 SIF에 등록된 소 도축장 가운데 8%인 18곳에서 정상 근무 외에 이동 시간 연장 및 도축일 증가에 따른 추가 검사 요청이 있었고, 그 중 95%에서 검사가 치러졌다.

돼지에 대해서는 29%인 26곳, 가축에 대해서는 38%인 49곳에서 추가 처리에 걸리는 검사 요청이 있었고, 각각 95%, 94%로 추가 검사가 치러졌다. 또 이 보고서에서 5월 가축 SIF검사 건수는 작년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였다.

식육처리장 정지 상황

DIPOA는 식육처리장에 COVID-19 관련 상황 등의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기업과 생산부문 책임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5월에는 47개소의 식육처리장이 활동을 정지하였다(표 6). 다만, 중단 일수는 각 도축장마다 다르며, 5월 중에 가동을 재개한 처리장도 있다고 밝혔다.

〈표 6〉 2020년 5월 식육처리장 정지 상황

지역	주	식육처리장 종류
북부	아크레 주	소 도축장(1개소)
	아마조나스 주	소 도축장(1개소)
	파라 주	소 도축장(4개소)
	론도니아 주	소 도축장(1개소)
	토칸친스 주	소 도축장(1개소)
북동부	바이야 주	소·돼지·산양 도축장(1개소) 소·산양·말·양 도축장(1개소) 산양 도축장(1개소) 산양·양 도축장(1개소)
	피아우이 주	식조 처리장(1개소)
	페르나부코 주	식조 처리장(1개소)
	바라이바 주	식조 처리장(1개소)
	마토그로소 주	소 도축장(5개소)
중서부	마토그로소 도 술 주	소 도축장(3개소)
	고이아스 주	소 도축장(4개소) 돼지 도축장(1개소)
	연방직할구	돼지 도축장(1개소) 식조처리장(2개소)

지역	주	식육처리장 종류
남동부	미나스제라이스 주	소 도축장(1개소) 돼지 도축장(1개소)
	상파울로 주	소 도축장(1개소)
남부	리오그란데 도 술 주	소 도축장(3개소) 돼지 도축장(3개소) 식조 처리장(2개소)
	산타 카타리나 주	돼지 · 식조 처리장(1개소) 식조 처리장(2개소) 양 처리장(1개소)
소 도축장 합계		28개소
돼지 도축장 합계		8개소
식조 처리장 합계		10개소
산양 도축장 합계		4개소
말 도축장 합계		1개소
양 도축장 합계		3개소
총 합계		47개소

주: 축종별 합계 수치는 복수 축종을 처리하는 복합형 식육 처리장이 일부 있어, 각각의 축종에서 카운트하였으며, 축종별 합계 수치의 합계와 총합계는 일치하지 않음.

자료: DIPOA,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년 8월호에서 재인용

[참고(링크)] 제3차 보고서(2020년 6월 16일 공표),

https://www.gov.br/agricultura/pt-br/assuntos/noticias/relatorio-mostra-andamento-dos-servicos-de-inspecao-e-fiscalizacao-de-produtos-de-origem-animal-no-pais/copy_of_3RelatoriodeatividadesSIF.pdf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에 따른 육류 검사로의 영향(제2차 보고)(브라질)(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년 7월호 南美 1番 情報) (https://www.alic.go.jp/c_hosa-c/joho01_002697.html) 또는 이 보고서의 전편(2020년 8월호(9권 4호))을 참조

(출처)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년 8월호

2. (2020년 6월 25일) 도축장 등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규칙을 공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급속한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목식량공급부(MAPA) 및 경제성(ME), 보건성(MS)은 공동으로 도축장이나 유제품 공장 등의 COVID-19 감염을 방지·관리·억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규칙을 공포하였다.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은 노동검찰청(MPT)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국민에게 식량 공급, 고용 경제 활동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달 브라질 정부는 이미 COVID-19 확대에 대처하기 위한 식육 처리장에 대한 권고를 담은 대책 프로토콜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6월 19일(금)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정한 합동 명령 제19호가 관보에 공포되었다. 대책 프로토콜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면서 관계자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 라인(일부 발췌)

- COVID-19의 감염 확인자, 감염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자 및 감염 확인자의 접촉자인 종업원을 14일 출근 중단한다.
- 종업원 간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어려운 경우에는 근무 시간대를 미루거나 개인 보호구와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내수성 파티션을 종업원 사이에 설치하거나 플라스틱 페이스 쉴드를 사용할 것.
- 개인 보호장구 등 사용과 처분에 대해, COVID-19에 대응한 절차를 정비하고, 종업원을 지도한다.
- 기업은 가능한 한 원격 워크를 추진한다, 입·퇴소 때 종업원의 혼잡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 공기 재순환을 피하고, 밖에서 깨끗한 공기를 도입하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 기업이 식당이나 탈의실 종업원의 통학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책을 강화할 것.

또, 가동 재개 요건으로서 전 종업원의 검사는 의무화하지 않고, 산업의(産業醫)에 의한 종업원 검사에서 COVID-19 감염자, 감염이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

자 및 감염 확인자의 접촉자를 출근 정지하거나, 재개 이전에 시설 등을 소독할 필요가 있으며, 종업원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행 방법과 검사 결과 해석에 대해서는 보건부가 권장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테레자 크리스티나 MAPA장관은 “이 성령으로 COVID-19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도축장 종업원의 안전성을 높이고, 통상 업무 및 생산의 지속, 심지어 브라질 국내나 해외를 향해 식량 공급을 가능한 조화롭게 활동을 초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참고(링크)] 가이드라인을 정한 합동 성령 제19호가 게재된 관보

<http://www.in.gov.br/en/web/dou/-/portaria-conjunta-n-19-de-18-de-junho-de-2020-262407973>

(출처)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8月號

3. (2020년 6월 26일) 브라질 곡물산업 대표 협회인 ANEC, 브라질 대두 수출업체들이 중국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가 없는 화물 보증하라는 데에 대해 약속할 수 없다”고 밝혀

브라질의 현지 곡물상인을 대표하는 협회인 ANEC에 따르면, 곡물 수출업체들은 중국이 새로운 화물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없다고 요구한 보증서를 제공해 줘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ANEC의 계약위원회 국장 Marcos Amorim은 목요일 법무법인 Mattos Engelberg가 주최한 웹 세미나에서 “중국의 요청에 대한 수출업체들의 반응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식품으로 전염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ANEC의 회원은 미국의 Cargill 및 중국의 Cofco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농산물 거래 업체를 포함한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대두 구매국이며, 2019/20년 작년부터 약 9,400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로 브라질과 미국에서 수입될 것이다. “ANEC은 업체들이 동등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한을 준비하고 있다. 가급적, 우리는 수출업체들이 여기에 서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ANEC은 중국 법률을 준수한다고 선언하는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razil soy exporters cannot promise China coronavirus-free cargos, ANEC says(ANEC은 브라질 대두 수출업체들이 중국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가 없는 화물을 약속할 수 없다고 밝혀)'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6월 26일자 게재(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32/page/2)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4. (2020년 7월 1일) 브라질 산업 그룹 ANEC, 브라질이 전염병 속에서 정상적인 항만 활동으로 곡물 수출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해

산업 그룹 ANEC은 “브라질은 코로나19 전염병 속에 중국의 수요가 강세를 유지하고 항만이 정상 가동되어 6월 대두 수출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증가한 1,19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NEC은 보고서에서 “이달 들어 브라질산 옥수수의 수출은 출하량 기준으로 77만 4,850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ANEC은 또 4월 7,300만 톤으로 전망하였던 대두의 2020년 연간 수출 전망치를 7,800만 톤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의 7월 대두 수출량은 725만 톤, 해외 옥수수 판매량은 390만 톤으로 추산되며, 브라질의 두 번째 옥수수 수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한다.

대두 수출은 7월 말 6,900만 톤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옥수수 수출은 648만 톤으로 예상하고 대만산 옥수수 수요 증가를 강조하였다. 이 기간 브라질 옥수수 수출의 32%가 대만으로 나타났고, 베트남(16%), 일본(14%), 이란(9%)이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브라질 대두 수출의 72%는 중국이 차지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razil on grain exporting spree as port activity normal amid pandemic, says Anec(Anec은 브라질이 전염병 속에서 정상적인 항만 활동으로 곡물 수출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함)'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7월 1일자 게재(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42)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5. (2020년 7월 23일) 브라질 COVID-19 기간 중 수요 증가로 메르코수르 지역 외에서 쿼터를 늘린 후 러시아 밀을 구입

러시아는 이번 달 브라질에 밀 화물 2대를 수출하였는데, 이는 올해 첫 거래에서 총 6만 톤에 달한다고 한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이 말하였다. 무역회사 firms Sodruzhestvo and Glencore [RIC:RIC:GLEN.UL]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산 곡물 구매는 브라질의 주요 밀 공급국 이웃인 아르헨티나를 포함하여 메르코수르 블록 밖에서 수입되는 브라질 밀에 대해 무관세 쿼터를 신설하였다.

브라질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은 지난해 전체에서 9만 1,700톤의 밀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반면, 2018년에는 2만 6,200톤의 밀만 수입하였다. 브라질의 밀 산업 그룹인 Abitrito는 러시아와 캐나다, 그리고 미국이 작년에 만들어진 75만 톤에 대한 새로운 무관세 수입 쿼터를 통해 이득을 볼 것 같다고 말하였다.

브라질은 COVID-19 기간 동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에 사상 최대인 730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아르헨티나의 가뭄과 경제 투쟁으로 인해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을 문제 삼았다. 그래도 아르헨티나는 올 상반기에 브라질의 밀 수입량 350만 톤 중 312만 톤을 공급하였다. 그다음 2위는 미국 17만 2천 톤, 이어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각각 9만 7천 톤과 8만 톤으로 뒤를 이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razil buys Russian wheat after expanding ex-Mercosur quota(브라질은 메르코수르 지역 외에서 쿼터를 늘린 후 러시아 밀을 구입)'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7월 23일자 게재(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86/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아르헨티나]

1. (2020년 7월 21일) 중국 수출국에 'COVID-19 free' 보증 요구에 아르헨티나 곡물 수출업자들 '부적절한 보증 요구'라고 반발

아르헨티나 곡물 수출업자들은 지난 6월 말 중국 수입업자들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남미 국가에서 출하되고 있는 곡물에 대해 '부적절한' 보증을 요청하고 있

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이 화요일에 본 이 서한은 CIARA-CEC 곡물 수출업과 석유 시추업자들의 회의실에 의해 서명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CIARA-CEC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협회는 브라질, 캐나다, 미국 등 아시아 전역에서 돼지, 가금류, 소를 살찌우는 데 사용되는 대부분의 대두, 옥수수, 대두박 가축 사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요 수출국들도 중국이 요구하는 코로나바이러스 보증에 반대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하였다. 중국 수입업자들은 중국으로 보내진 작물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수출업자들의 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COVID-19 free’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기괴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캐나다 곡물위원회 위원장 Cam Dahl은 “캐나다 곡물위원회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세계 유사한 단체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다른 단체들이 공통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그 목적은 곡물 거래에 대한 과학 기반의 접근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달은 말하였다.

Dahl은 “중국이 요구한 대로 보증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수출기업에게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Dahl은 중국의 보증 요구에 대해 “이것은 무역을 제한할 또 다른 잠재적인 임의적 이유”라고 말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rgentine grains exporters object to Chinese ‘Covid-19 free’ guarantee(아르헨티나 곡물 수출업자, 중국 ‘Covid-19 free’ 보증에 반대)’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7월 22일자 게재(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84/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III. 유럽

[EU]

1. (2020년 3월) EU 집행위는 이탈리아 요청에 의해 직접지불금과 일부 농촌개발프로그램 상의 지원금 신청 기한을 한 달 연장을 허가하였고, 독, 영, 이탈리아 등도 코로나 19 대응조치 강구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 당국 요청에 따라 직접지불금과 일부 농촌개발프로그램 상의 지원금 신청 기한을 한 달 연장하도록 허가하였다. EU 집행위는 마감 일시를 2020년 5월 15일에서 6월 15일로 변경하였다.

이는 COVID-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실제 연장 여부는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 농림부 장관 율리아 클뢰크너(Julia Klöckner)는 입국제한 조치※로 인한 농업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농업은 매해 약 28만 6천 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COVID-19 확산방지를 위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다양한 조치 중에는 i) 외국인 근로자가 COVID-19에 감염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면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과, ii) 외국인 노동자 체류 허용 기간을 일시적으로 7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한편, 독일은 다른 산업 종사자가 일시적으로 직업을 변경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슈퍼마켓과 기타 소매상들이 야간에도 상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 이는 위생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 상대적으로 고립감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한편, 영국 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응급 상황 대처를 위해 운전기사의 근무시간 연장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 농식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됨에 따라 농식품 수출 감소를 우려해 국가적 홍보를 실시하고, 이탈리아산 농식품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 규제·차별이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이메일을 개설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95-296

- 자세한 내용은 EU 집행위원회 보도자료(Commission offers to all Member States possibility to extend CAP payments application deadline, 2020.3.17.),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보도자료(New measures on night time deliveries to supermarkets to support coronavirus response, 2020.3.9.), 농업전문지 IEG Policy 기사(Germany considers special measures to ensure seasonal farm labour, 2020.3.18.), 농업전문지 IEG Policy 기사(Italy moves to protect agri-food exports amid COVID-19 outbreak, 2020.3.18.)을 참고하기 바란다.

2. (2020년 3월) EU 국가들의 COVID-19 대응 동향 정보

여기에서는 EU 집행위원회 보도자료, 농업전문지 IEG Policy 기사, 유럽투자은행 보도자료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소개한다.

EU 집행위원회는 COVID-19로 위기에 직면한 농식품 영역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다. 먼저, CAP 지원금 신청 기한을 연장하였다. 신청 기한을 기존 2020년 5월 15일에서 6월 15일로 변경하였다. 둘째, 보조금을 증가하였다. 임시 지원체계 채택으로 농가는 최대 10만 유로, 농식품 제조업체와 유통 업체는 최대 80만 유로를 지원받는다.

단, 회원국이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aid)와 병행하는 경우, 농가는 정부로부터 총 12만 유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소 허용보조란 회원국이 3년간 EU 집행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직접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행정적 부담도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회원국 간 농식품 이동 원활화 조치를 하였다. 국경 통과 절차에 1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함으로써('Green Lanes') 농식품 유통 속도를 개선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농업부문 계절 근로자를 포함한 중요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회원국들은 자국 내 계절 근로자 수요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계절 근로자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고용주에게 계절 근로자의 보건·안전상 보호 필요성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영국 농식품협회는 앱(App) 개발사 시프트(Syft)와 16주간의 협정을 맺고 실직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프트는 외식업·운송·물류 부문 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신속·정확히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학교에 과일·채소, 우유를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COVID-19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한편, 학교에 납품되지 못한 농산물들은 병원, 자선단체와 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전달될 것이다.

다섯째, 유럽연합투자은행은 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 목적으로 농업 협동조합과 농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7억 유로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승인했으며, 신규 자금은 환경보호, 자원/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혁신, 경쟁력 관련 투자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96-297

- 자세한 내용은 EU 집행위원회 보도자료(Coronavirus: Commission stands ready to continue supporting EU's agri-food sector, 2020.3.25.), EU 집행위원회 보도자료(Coronavirus: seasonal workers included in new guidelines to ensure free movement of critical workers, 2020.3.30.), 농업전문지 IEG Policy 기사(Food industry turns to recruitment app to fill vacancies with "furloughed" staff, 2020.4.1.), 농업전문지 IEG Policy 기사(Suppliers of fruit, veg and milk to EU schools can get COVID reimbursement, 2020.4.1.), 유럽투자은행 보도자료(Agriculture and bioeconomy: EIB approves €700 million of financing under the Investment Plan for Europe amid coronavirus pandemic, 2020.4.2.)을 참고하기 바란다.

3. (2020년 4월 3일) COVID-19로 인한 유럽 주요국의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한 대응책

여기에서는 농업전문지 IEG Policy에서 발표한 ‘Analysis: COVID-19 triggers acute farm labour shortages across Europe(2020.4.3.)’의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모로코 정부가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폐쇄하였다. 그 결과 스페인 우엘바에서 작업하는 모로코 출신 근로자 수는 평년 딸기 수확기에 비해 절반 정도이며, 오이·고추·토마토와 같은 품목 역시 생산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매해 모로코에서는 딸기 수확기에 약 1만 5천 명의 모로코 농업 근로자가 스페인으로 유입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공백을 자국민이 채울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에 농민조합은 호스피탈리티 산업(술집·식당) 실직자를 중심으로 고용을 확대할 것이다.

COVID-19 확산이 가장 먼저 시작된 이탈리아는 확산 초기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탈리아 농민조합은 매해 투입되던 약 37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 중 약 10만 명이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딸기·체리·복숭아 수확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화훼류 농가 역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 역시 전국 2만 5천 ha에 달하는 아스파라거스 수확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독일 농림부 장관 율리아 클뢰크너(Julia Klöckner)는 아스파라거스 수확을 위해 노동수요자와 타 부문 노동 공급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였으며, 계절근로자 최대 근무 가능 기간을 기존 70일에서 연장하여 사회보장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115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클뢰크너 장관은 다른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3월 말 클뢰크너 장관은 자국 노동력이 기존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독일 역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가격 상승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농업인들은 3~5월 보통 20만 명의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며, 이들 중 7~8만 명이 외국인 근로자(스페인·포르투갈·폴란드·튀니지)이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프랑스 농민조합(FNSEA)은 농업 노동 수요-공급 매칭

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였다. 공급 매칭의 주된 농업 노동 공급자는 학생, 단기 근로자, 자영업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농업은 보통 6만 명의 계절 근로자들을 고용하나 올해(2020년)는 약 25%만이 영국에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정부 역시 신규 미취업자들이 농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노동 공급을 위한 캠페인(Feed the Nation)을 지원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9만 명의 신규 농업 진입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등록 인원은 1만 명에 그쳤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99-300

4. (2020년 5월 6일) 영국 정부, COVID-19 관련 낙농가 지원책 발표

여기에서는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에서 발표한 ‘New funding to support dairy farmers through coronavirus(2020.5.6.)’의 내용을 소개한다.

낙농업은 영국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COVID-19 발생 이후 과다 생산,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 2018년 영국 농업 생산액에서 낙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85%였다.

COVID-19 발생 이후에도 낙농가들은 매일 4천만 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점, 식당, 카페가 폐쇄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였다. 농가들이 소매점 입고량을 늘리고 있으나, 감소분을 상쇄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낙농가들이 COVID-19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과 5월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낙농가에 농가당 최대 1만 파운드 지원을 결정하였다. 지원 대상 농가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예산이 허용하는 한 해당 농가 모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낙농가에서 발생한 2020년 4월과 5월 소득 감소분의 70%(최대 1만 파운드)를 보상할 것이며, 이를 통해 농가들이 현재의 동물복지 수준을 유지하며 생산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영국 농업원예개발공사(AHDB)는 영국 가계 우유 소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판촉 활동을 시작하였다. 판촉 활동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신선 우유와 낙농업이 지닌 가치를 부각시킬 것이며, 정부는 1백만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 2020년 4월 영국 정부는 경쟁법 상 규제를 완화하여 낙농 산업 내 생산자와 유통업자들이 함께 생산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여기에는 노동력과 설비를 공유하거나, 일시적으로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협력, 우유가 추가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가공식품(예: 치즈, 버터)을 식별하는 것이 포함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 301

5. (2020년 4월) 유럽연합의 농식품 공급체인 관리 동향

여기에서는 유럽연합 의회에서 발표한 ‘Protecting the EU agri-food supply chain in the face of COVID-19(2020.4.)’의 내용을 소개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을 강화하고 상품·인력의 이동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는 농식품 공급체인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소비자들은 공황 구매, 사재기와 같은 과열된 반응을 보였으며, 이동 제한 조치는 냉장 컨테이너,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생산요소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공적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화훼류, 외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농촌 관광도 크게 위축되었다. 유럽 농업협동조합협회(COPA-COGECA)는 현재 농식품 공급체인의 위험 요인으로 △원유(原乳)의 수집·운송·가공 능력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투기나 불공정한 거래 행태가 나타날 수 있고, △농작업 근무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유럽연합은 원활한 상품과 인력의 이동을 위해 녹색 차선 신설, 노동자 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CAP 지원금 신청 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녹색 차선이란 국경 통과를 위한 행정 절차가 15분 이하로 소요되는 차선을 뜻하며, 가이드라인이란 농업부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중요 근로자들이 작업장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이동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2020년 3월 25일 개최된 유럽연합 농업장관 회의에서 농업장관들은 현재 역내에 농식품이 충분히 존재하며, 유럽연합이 취한 조치들이 공급체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또한, △CAP에서 요구하는 회원국의 관리·보고 의무를 간소화※하고, △제1축과 제2축 간 예산 전용을 유연하게 하며,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언급하였다. 위시에초스키

(Wojciechowski) 유럽연합 농업담당 집행위원 역시 2020.3.27.일 인터뷰를 통해 CAP의 간소화·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 302

- 원문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html>

6. (2020년 5월) COVID-19가 EU 각국 농업 노동력에 미친 영향

여기에서는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Meeting labour demand in agriculture in times of COVID 19 pandemic(2020.5.)’의 내용을 소개한다.

COVID-19 이전에도 EU 농업노동력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EU 농업취업자 수는 2009년 1,080만 명에서 2018년 890만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대부분 내국인 농업취업자 수 감소에서 기인한다.

〈그림 6〉 EU 농업취업자 수 추이(2009~2018년)



2018년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최소 6만 8,300 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현재 데이터들은 단편적·부분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계절근로자 이동 및 입국 승인에 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추가적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09~2018 데이터와 로짓(Logit)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해 본 결과, 농업에 새로운 내국인 노동력이 유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 상태에 있거나 휴직(inactive) 상태에 있을 때 농업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실업자가 농업으로 유입될 확률 역시 1%에 불과하였다. 이 외에 농업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인구 특성은 △19세 이상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교육 수준이 낮은, △이민자 남성이었다.

단기적으로는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외국인 노동력 공백을 자국 내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현재 임금 수준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동제한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숙박업계 종사자들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업 임금은 타 직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농업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전체 임금 분포에서 하위 3분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 농업 근로자 감소로 농업 임금이 상승한다면 내국인이 농업으로 유입될 수 가능성이 있다.

내국인-외국인 간 농업 임금 격차는 회원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벨기에·키프로스·프랑스·그리스·헝가리·이탈리아에서는 외국인 농업 근로자가 내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에스토니아·스페인·아일랜드·루마니아·슬로베니아·슬로베키아에서는 외국인 농업 근로자 임금이 내국인보다 더 높았다.

따라서 농업 인력 고용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이동제한 조치 대상에서 농업에 종사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예외로 하는 정책전환이 필수적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모음」, 2020.7.20., p. 295-304

-원문 출처: <https://ec.europa.eu/jrc/en>

7. (2020년 6월 11일) EU농산물·식품 음료들, 영국 EU·FT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에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 ‘합의 없는’ 경우, 이행 기간 연장, 대체 안 조치를 요구

유럽 연합(EU) 최대 농업 생산자 단체인 유럽 농업조직위원회·유럽 농업협동조합 위원회(COPA-COGECA¹⁷⁾) 유럽 식품·음료산업연맹(Food Drink Europe¹⁸⁾), 유럽 농산품교역연락위원회(CELCAA¹⁹⁾) 3자는 연명으로 6월 4일 영국과 EU의 제4

차 협상 종료를 앞두고, “그 동안 3차 협상에서 진전이 없었다는 점과, 이행 기간 종료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합의가 안 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3자는 보도 자료에서, “EU의 대 영국 농식품 무역규모는 2019년에 580억 유로(7조 2,500억 엔=81조 1,275억 원: 1유로=125엔=1,398.75원)에 달하였고, 관세 및 할당 물량이 없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실패하면 EU와 영국 양쪽의 농산물·식품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또 “관세 도입에 더하여 관련 규제의 차이가 뒤따른다면, 서플라이 체인에 현저한 혼란이 온다”고 하였다.

3자는 양측의 혼란을 한정적으로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며, 구체적으로는 장래의 EU와 영국의 무역협정에서 다음 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하였다.

- 관세, 수수료와 과징금 전체 쿼터 물량을 도입하지 말 것.
- EU와 영국 간 공평한 경쟁 조건 확보. EU 및 영국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결
- 위생·식물검역(SPS) 조치 및 규격 기준에 관한 고도의 협력과 그 적용의 차이를 최소화할 것. 이어 유럽 식품안전청(EFSA) 및 영국 식품기준청(FSA)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가장 중요
- 세관 심사와 사업상 절차의 부담을 덜어주는 세관 협력.
- EU 및 영국 사업자만을 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원산지 규칙.
- EU단일 시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일랜드·북 아일랜드에 관한 협정이 확실히 실시될 것.
- 장래에 걸친 EU 및 영국의 지리적 표시(GI)의 상호 보호.

또 현재는 2020년 말까지 이행 기간 중에 있지만, 특히 무역협정 체결 및 비준까지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우려하고, “영국 정부가 이행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17) 유럽 농업조직위원회·유럽 농업협동조합위원회(COPA-COGECA)는 EU회원국 2300만 명 이상의 농업 생산자로 구성된 Copa(유럽 농업조직위원회) 및 2만 2000 농업협동조합으로 구성된 Cogeca(유럽 농업협동조합위원회)에 의해 조직된 EU최대의 농업 생산자 단체이다. Copa 및 Cogeca는 독립된 조직이지만, 양측은 공동에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18) 유럽 식품·음료산업연맹(Food Drink Europe)은 EU회원국 29만 4000개 사업자와 470만 명의 노동자로 구성된 EU최대 식품제조업 단체이다. 거래량은 EU 전 농산물의 70%를 차지한다.

19) 유럽 농산품교역연락위원회(CELCAA)는 EU회원국 3만 5000개의 농산물 무역 사업자로 구성된 EU단체이다. 곡물 사료, 설탕, 와인, 육류, 유제품, 청과물, 계란, 향신료, 절화 등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것에 유감을 나타냄과 동시에, 이행 기간은 사업자들의 혼란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길이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행 기간 내에 FTA 체결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하여, 2021년 초부터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대체 방안의 검토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관세와 할당 물량이 없는 자유무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의한 중대 영향에 대응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협상 담당자들에게 또 다른 시간을 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3자는 프레스 릴리즈 마지막에서 “합의를 얻지 못하고, 이행 기간 연장도 하지 않을 경우, EU의 농산물·식품부문에 EU에서 영국으로 수출 물량이 많이 줄어들어 수입의 대폭 감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상실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그 영향은 중소기업 생산자, 농업협동조합에 특히 클 것”이라며, “이행 기간 연장 여부의 판단도 포함하여 기존 협상의 진척 평가를 위해 6월 중으로 예정된 정상급 회합 중에서 이번의 우려가 고려되었고, 협상 과정이 신속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진전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야심적이고 높은 수준의 합의를 위한 영국과 EU 모두에게 공평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고, 쌍방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질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를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EU 이탈 협정에서는 올해 6월 말까지 양측 합의에 의한 1회에 한하여, 1년부터 2년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유럽 위원회의 미셸 발니에 수석 협상관이 6월 5일 비디오 회의에서 열린 이번 협상을 마치고, 이행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영국의 입장에 언급한 뒤, “비준 절차를 감안하면 올해 10월 말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며, “이행 기간을 1년 내지 2년 연장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EU측의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또 협상에서 영국의 입장이 ‘공평한 경쟁 조건 확보’, ‘돈 세탁 및 테러 활동 자금 공여에 대한 대책’, ‘어업’등의 점에서, 2019년 10월에 양측이 합의한 정치 선언의 내용에 맞지 않는 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이들이 주요 논점이라고 말하였다.

(출처)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8月號

8. (2020년 6월 16일) 영국 국채농업단체, 코로나 사태의 소비동향 조사결과를 공표. 락 다운으로 다진 고기와 닭고기 수요가 증가

영국 농업·원예개발공사(AHDB: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Development Board)는 6월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영향으로, 영국에서 실시된 도시 봉쇄(락 다운, Lock Down²⁰⁾)의 영향을 포함한 소비동향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상에서 공표하였다.

조사는 영국 조사회사인 YouGov 사와 공동으로 4월에 실시한 것이다. 또한 영국의 락 다운은 3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5월 이후 점차 완화되고 있다.

소비자 행동과 음식 습관의 변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에서 식사를 할 기회가 늘어났다. 가정에서 요리를 즐기는 사람의 비율은 락 다운 전(72%)에 비해 증감은 없지만, 전체 응답자 중 27%가 이전보다 재료를 ‘처음부터 요리하는’ 것처럼 되었다고 답한 반면,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가져가는(take away²¹⁾) 것은 줄었다는 응답자는 48%에 달하였다. ‘처음부터 요리하는 기회’의 증가는, 범용성 높은 다진 쇠고기와 닭 가슴살 등의 이용 확대로 이어지면서, 조사 기간의 다진 쇠고기 판매량은 전년 대비 36% 증가, 닭 가슴살은 동 33% 증가였다.

가격·품질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의식은 식비를 줄이고 있고,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은 3분의 1정도로, 코로나 사태에 의한 다양한 영향으로부터 양극화도 보인다고 한다. 한편 외식에 대해서는 타자와의 접촉 회피와 쪼들리는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았으며, 3분의 1이상이 절약을 위해 외식을 줄였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고가의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사람은 외식을 그만두고, 고가의 식품을 소매점에서 구입하

20) 움직임·행동에 대한 제재를 뜻하는 영어 단어로, 사람들의 이동을 제재하는 ‘이동제한령’, ‘봉쇄령’을 말한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외출 제한 및 상업시설의 영업 중단 등 락다운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 인해 전 인류의 생활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21) 테이크아웃 전문점(다른 데서 먹을 수 있게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 또는 이런 식당에서 파는 테이크아웃 음식(출처: 네이버 영어사전, <https://terms.naver.com/>)

게 된 반면, ‘식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외식을 줄인다’라는 응답자는 보다 소매점에서 저렴한 가격대의 식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측면

일반적으로 소비자 의식이 가격 등에 쏠릴 경우 건강의 우선순위는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건강에 좋은 식품 섭취를 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락 다운으로 몸을 움직이는 기회가 줄면서, 식품을 통해 건강 유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건강하다는 말과 함께 관련 레시피를 검색하는 건수는 락 다운 기간 중인 4월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식육, 유제품, 시금치²²⁾

락 다운으로 쇼핑 횟수가 줄어든 데서 식육, 유제품, 시금치 구입에 있어서 소비기한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락 다운 하에서 구입에 해당하는 중시 점은 식육에 관해서는 소비 기한 등이 41%, 가격이 25%, 용량이 21%, 유제품에 관해서는 소비 기한 등이 36%, 용량이 17%, 가격이 16%, 시금치에 관해서는 소비 기한 등이 33%, 영국산 또는 현지산인 것이 19%, 용량이 18%였다.

AHDB는 락 다운 실시 이후 불과 2개월 사이에 영국의 소비 동향은 크게 변화하고, 그 영향은 락 다운을 풀어 나가는 중에 있어서도 크게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 소매업에 있어서는 락 다운이 완화되는 추세로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에 대한 적응이 중요하다.

(출처)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8月號

22) AHDB의 업무 대상 품목

9. (2020년 6월 29일) EU 유업단체, 진전을 볼 수 없는 영국과의 협상을 우려하며, 영국·EU간 서플라이 체인이 유지되도록 요청

유럽 유제품수출입·판매업자연합(EUCOLAIT: European Association of Dairy Trade²³⁾)은 6월 16일 영국이 이행 기간 연장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표명하면서, “하드 브렉시트(강경 이탈)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준 절차를 감안하여 올해 10월 말까지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최종 합의하여야 하며, 나머지 4개월 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EUCOLAIT는 “이번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대유행과 그 경제적 영향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EUCOLAIT의 기본자세는 종전부터 변함없이, “장래 EU·영국 간 무역 관계는 관세 할당물량 또는 불필요한 비관세 장벽이 없이, 자유롭게 무역이 생기고 가능한 현상에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영국이 올해 말에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이탈하는 것을 생각하면, 한정된 기한 내에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하는 강한 정치적 의사가 필요하다, 협정은 가능한 한 간략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관세, 양적 제한의 비적용

EUCOLAIT는 “현재 EU와 영국 유업체들은 통합된 서플라이 체인 속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21년 1월에 EU·영국 간 무역에 EU 밖의 관세가 적용되게 되면, 그 타격은 클 것이다. 추산에 따르면, 현재의 무역 90% 이상이 해소된다고 전망되기 때문에, 관세가 없는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EU에서 영국 수출용 유제품은 연간 35억 유로(4,270억 엔=4조 7,781.3억 원: 1유로=122엔)을 넘어, 최대 대응하여야 할 곳이 되고 있다. 수출의 대부분은 치즈이지만, 요구르트, 버터, 육아용 조제분유, 음용유도 상당량 수출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EU수출은 이 20억 유로(2,440억 엔=2조 7,303.6억 원)에 가깝다.

이행 기간이 끝난 뒤 영국과의 무역에 역외 관세가 부과되면, 영국에서 EU에 수출되는 유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기존 영국에서 EU에 수출된

23) EUCOLAIT(유럽 유제품 수출입·판매업자연합)는 EU의 유제품 수출 촉진을 위한 조직이며, 우유와 유제품 수출업자, 도매사업자 등의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500개 이상의 주요 기업·단체가 가맹하고 있다.

제품이 영국 국내 시장에 나돌기 때문에, 이로써 EU의 수출품은 더욱 점유율을 빼앗기게 된다.

“유제품의 자급률이 낮은 영국에서는 치즈를 주로 하는 많은 유제품 수입이 계속되지 않으면, 제품 부족과 가격 급등 등이 불가피하게 되고, 동시에 EU에서는 COVID-19에 의한 역내 수급이 불안정하게 되는데, 대체 수출시장을 찾을 필요성을 재촉 받게 된다, 유가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말하였다.

특혜 원산지 규칙

EUCOLAIT는 유제품에 관해서는 EU가 체결되는 대부분의 FTA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원산지 규칙과 크게 다른 규칙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유제품(HS4류)에 대해서는 EU 외의 국가와의 교역에서는 ‘완전 생산품’에 의한 판정 기준을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영국과의 무역에서는 EU 및 영국산 원료 양쪽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공 제품(HS19류의 영양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는 이 제품에 이용되는 일부 원자재에 대해 유럽의 생산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비원산유(非原産乳) 성분의 역치(閾値)를 중량 기준으로 20% 또는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과 같은 유연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공평한 경쟁 조건

EUCOLAIT는 이번 협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평한 경쟁 조건의 유지에 대해서 타개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해결이 급선무라고 하였다. 유럽 이사회에서 채택된 협상 지령에서는 광대한 EU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노동기준, 경쟁, 식품안전 등의 분야에서 타협 없는 약속을 통한 공평한 경쟁 조건 유지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양측 모두 2019년 10월 합의한 EU 이탈에 대한 정치 선언에서 정한 원칙을 실현해야 하지는 않겠지만, 규제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EU 이탈을 한다는 영국의 선택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영국 측의 입장에도 일정한 이해를 나타냈다.

이에 EUCOLAIT는 EU가 캐나다, 일본 등 다른 무역 상대국에 대하여 매우 포괄적인 시장접근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이고 공평한 경쟁 조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EU의 일원이었던 영국의 기존 실적을

보면, 관련 분야에서 EU에 비교하여 기준을 낮추는 일이 일어난다고는 믿기 힘들다. 영국을 EU의 아키·커뮤노테일(EU에서 축적된 법 체계의 총칭)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동등한 성과를 얻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였다.

통관의 원활화

EUCOLAIT는 통관의 원활화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완전히 견해의 차이 없는 국경 조치는 불가능하며, 규칙에 따른 세관 절차와 국경 관리가 필요하다”며, “영국과 EU의 오랜 관계성에 의한 신뢰성을 고려하고, EU의 세관 규약의 틀 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식품 위생 및 동물 위생의 해결책

EUCOLAIT는 식품 안전과 동물위생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계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EU와 영국 간에 완전한 제휴가 구축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식품 안전에 관한 규칙은 장래까지 EU와 영국 간 완전히 부합할 필요는 없지만, 원활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정도의 유사성은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EU·스위스 간에 유제품을 수출입할 때, 위생 검사를 구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면서, 영국과의 사이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또, “EU·영국 간 식품 안전상의 문제에 계속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결론

EUCOLAIT는 “관계 유지가 둘 간의 이익이 될 것은 분명하며, 영국이 요망하는 EU규칙이나 정책에서 이탈함에 있어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EU 회원국 이외의 국가가 회원국과 동등한 이익이 제공되면 되겠느냐”면서도 “불필요한 벽을 추가하여 사태를 악화시킬 일이 아니다”라며, EU와 영국 시민과 사업자를 위해 공고한 관련성 유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제품 무역에서 세관 절차상 일어날 수 있는 다소의 마찰에 대처할 수 있지만, EU·영국 간 유제품 서플라이 체인이 유지되려면, 기타 무역조건도 변경 없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보(유럽)]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EU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英EU・FTA交渉が難航していることにリスクが高まっていると懸念を表明. 「合意なし」の場合, 移行期間の延長, 代替案の措置を要求(1番の情報)」(2020年 1月 23日発)',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24.html)

(출처)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년 8월호

10. (2020년 7월 6일) EU 집행위원회, 2020년 EU 농업시장 단기 전망보고서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7월 6일 2020년 EU 농업시장 단기 전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COVID-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식량 공급망의 회복력을 확인하였고, 물가 상승과 긍정적인 생산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수출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에 따르면, 곡물의 경우, 2020/21년 EU의 곡물 생산량은 2019/20년 대비 2.7% 감소한 2억 8,630만 톤으로 전망되지만, 해당 수치는 5년 평균 곡물 생산량보다 1.7% 증가한 것이다. 이 시기의 곡물 생산량 감소는 겨울 곡물의 적은 재배 면적과 건조한 기후 때문이다.

육류의 경우, 쇠고기, 가금류의 생산량은 각각 1.7%, 2%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돼지고기의 경우 낮은 가격, 소비증가, 긍정적인 수출 전망, 돼지고기에 대한 투자 등의 이유로 생산량이 0.5%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에 따른 외식감소로 2020년 1인당 육류소비량은 2.5% 감소한 65.4kg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과일 및 채소의 경우, 사과는 2019/20년 작황 부진과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소매 수요 증가가 맞물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복숭아 생산량은 비싼 생산비용과 낮은 가격의 구조적 문제와 기상악화로 인해 사상 최저수준인 310만 톤으로 전망하고, 토마토 생산량은 스페인의 생산 감소가 폴란드의 생산증가로 상쇄돼 2020년에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유제품의 경우, 2020년 EU의 우유 생산량은 봄, 여름의 긍정적인 목초지 상황

과 저렴한 사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한 1억4,4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치즈의 경우 소매 수요 증가보다 외식감소에 따른 손실이 커 2020년 치즈 소비량은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유지종자 및 단백질 작물의 경우, 2020/21년 유채 생산량은 2019/20년과 비슷한 수준인 1,540만 톤, 해바라기 생산량은 2019/20년 대비 3.7% 증가한 1,040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대두와 단백질 작물의 생산량은 각각 280만 톤과 450만 톤으로 전망되지만, 사료와 식물성 기름 수요 회복이 더딤에 따라 분쇄량은 소폭 감소 할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의 경우, 2019/20년 대비 2020/21년 사탕무 재배면적이 3% 감소하는 반면, 설탕 생산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29(2020.7.20.)

- 원문 출처: https://ec.europa.eu/info/index_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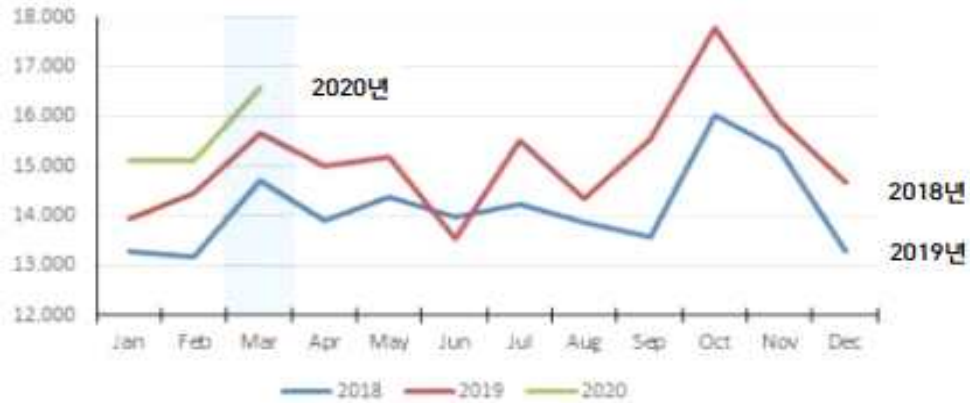
11. (2020년 7월 3일) 코로나19 발병 이후 EU의 농식품 무역 변화

여기에서는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MONITORING EU AGRI-FOOD TRADE: DEVELOPMENTS JANUARY-MARCH 2020(2020.7.3.)’의 내용을 소개한다.

2020년 7월 3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EU 무역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중국발 코로나19 발병 이후 세계 경제는 긴 침체에 빠졌지만, 2020년 초기에 EU의 농식품 무역은 안정세를 보였다. EU의 전체 교역액은 2019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786억 유로로 나타났다.

2020년 1분기 EU의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한 468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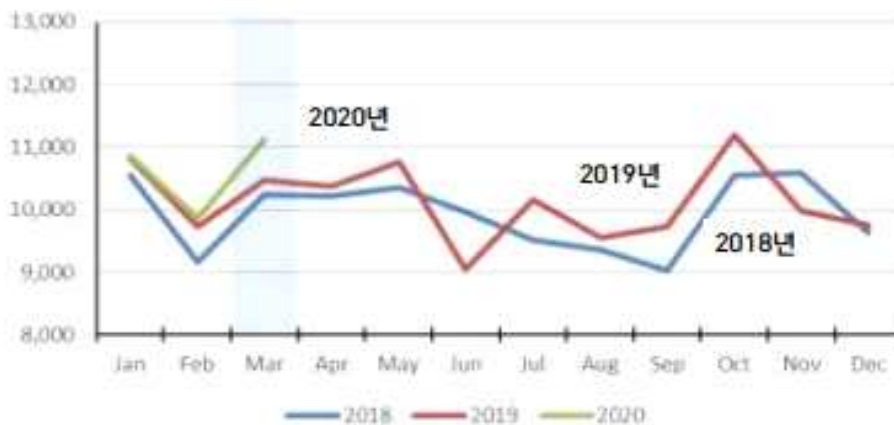
〈그림 7〉 연도별 EU 농식품 수출액(단위: 백만 유로)



EU의 농식품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이며,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이 촉진되어 전년 대비 11억3,600만 유로 증가하였다.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러시아, 미국 순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EU의 농식품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영국으로 2020년 1월 브렉시트 단행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8억 2,700만 유로 감소하였다. 이외에 홍콩, 레바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순으로 수출이 감소하였다.

2020년 1분기 EU의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2.6% 증가한 318억 유로로 나타났다.

〈그림 8〉 연도별 EU 농식품 수입액(단위: 백만 유로)



EU의 농식품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캐나다이다. 전년 대비 100% 넘는 3억 6,600만 유로가 증가하였으며, 이외에 인도네시아, 코트디부아르, 터키, 말레이시아 순으로 수입이 증가하였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EU의 농식품 수입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영국이며, 특히 주류, 제과, 곡물류의 수입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외에 우크라이나, 미국, 호주, 인도 순으로 수입이 감소하였다.

2020년 1분기 EU의 농식품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149억 유로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밀, 돼지고기, 곡물류 수출이 전년 대비 50%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주류와 원피 수출이 감소하였다. 열대과일류와 식물성 기름류 수입은 증가한 반면, 곡물류, 깻묵, 생담배, 밀, 주류 수입은 감소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0(2020.7.27.)

- 원문 출처: <https://ec.europa.eu/info/news>

[이탈리아]

1. (2020년 3월 9일) 이탈리아 정부, 경기부양책을 발표

유럽 내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발표(2020.3.9.)한 가운데, 그 규모는 250억 유로로 전망되며, 직접적인 자금 투입 외에도 주택자금 대출(모기지) 상환을 최장 18개월 연기하는 방안 등도 발표하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대 250억 유로의 긴급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며, 2020.3.13.일에 120억 유로 규모가 최초로 집행되었다.

한편, EU 회원국인 이탈리아는 재정적자에 대한 제약을 받는데, EU 측은 이 제약의 한시적 완화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 221

[영국]

1. (2020년 3월 10일) 영란은행, 2020년 3월 10일 기준금리 0.5%p 인하, 영국 정부도 120억 파운드 규모 재정투입 계획 발표

영란은행은 2020년 3월 10일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였고, 영국 정부도 120억 파운드 규모의 재정투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영란은행은 COVID-19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에서 0.25%로 인하하였고,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방안도 발표하였다.

정부는 COVID-19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에 50억 파운드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개인 및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 221

[독일]

1. (2020년 3월 8일) 독일 연립정부, 2020년 3월 8일 124억 유로 규모 경기 부양책에 합의

독일연방을 이끄는 연립정부는 2020년 3월 8일 124억 유로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합의하였다. 이 경기부양책은 2021~24년 동안 연평균 31억 유로씩 집행될 예정으로, 피해기업을 위한 무한대출 등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 222

[러시아]

1. (2020년 6월 17일) 러시아, 7월부터 12월까지 곡물 수출 쿼터 계획 없어

러시아 농업부는 곡물 수출에 대해 7월부터 12월까지 쿼터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무부는 내수시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어지는 하반기 곡물 수출 쿼터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번 주에 곡물 수출업체를 만나 2020/21년 곡물 수출에 대한 예비 전망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지금까지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감염시킨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함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700만 톤의 곡물 수출 쿼터를 정하였다. 그러나 지난 5월과 6월 무역상들이 서둘러 선적물에 대한 통관 서류를 확보함에 따라, 4월 말 이 나라의 온라인 곡물 수출 쿼터가 급속히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 plans no grains export quotas July-Dec (러시아는 7월부터 12월까지 곡물 수출 쿼터를 계획하지 않음)'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6월 17일자 게재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16/page/2)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2. (2020년 7월 7일) 러시아, 곡물 수출 할당량 메커니즘 영구화

타스 통신은 농업부 장관 Dmitry Patrushev의 말을 인용하여 러시아가 지난 4~6월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에 대응하여 도입한 곡물 수출 쿼터 메커니즘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7월부터 12월까지 곡물 수출이 쿼터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내년 1~6월에는 쿼터가 가능하여 국내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Patrushev 장관은 인터뷰에서 2020/21년 시즌 전반기(7월~12월)는 여전히 쿼터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쿼터 메커니즘이 영구적으로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아마도 10월에 새 시즌 수확에 대한 최종 자료를 받은

후 시장 참가자들과 함께 쿼터의 변수를 정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농업부는 7월 1일부터 시작된 2020/21년 마케팅 시즌에 러시아가 밀 3,500만 톤을 포함하여 4,500만 톤의 곡물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 곡물 수확량은 밀 7,500만 톤을 포함하여 1억 2,250만 톤이다.

Patrushev는 7월에서 12월 사이의 실적에 따라 향후 쿼터 중 일부를 개별 무역업자에게 할당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일부 상인들은 5월~6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서두르고 다른 상인들은 할당량을 얻지 못함에 따라 4월 말 그들의 사용량은 고갈되었다.

타스 통신은 Patrushev 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농업부와 수출업체의 공동 작업이 사태를 해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렇지만,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농업부는 새로운 형태의 ‘안정화 곡물 펀드’ 구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거의 고갈된 국가 비축물량을 보충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 to make grain export quota mechanism permanent(러시아, 곡물 수출 할당량 메커니즘 영구화)’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7월 7일자 게재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53)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벨라루스]

1. (2020년 7월 6일) 벨라루스 정부, 2020년 농축산업 성장 전망 발표

벨라루스 정부가 2020년 농업과 축산업의 성장을 전망하였다. 알렉산드르 수보틴(Aleksandr Subbotin) 벨라루스 부총리는 2020년 벨라루스의 농업 성장률이 5%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와 함께 수보틴 부총리는 2020년 벨라루스의 축산업은 7~1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벨라루스 정부는 COVID-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파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벨라루스 정부는 2020년 57만 3,000헥타르의 경작지에 파종하였다고 하면서, 2019년 봄 파종 면적과 비교해 1% 늘어났다고 발표하였다.

벨라루스 정부는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25% 더 많은 비료를 비축하였다

고 하면서, 2020년 수확이 2019년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벨라루스의 농축산물은 주로 러시아로 수출된다. 벨라루스의 2019년 대(對)러시아 농축산물 수출액은 약 43억 달러(한화 약 5조 1,600억 원)로, 2018년과 비교하여 3% 성장하였다. 벨라루스는 세계 100개 나라로 농축산물을 수출하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버터를 수출하고, 네 번째로 많은 치즈를 수출하는 나라이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2020.7.8.)

- 원문 출처: BelTA, Subbotin: Belarus' agricultural industry has been doing well this year (2020.7.6.) 등

[우크라이나]

1. (2020년 7월 2일) UGA 곡물 거래자 노조, 우크라이나 2020/21년 시즌 수출 할당량 설정 지연 주장

우크라이나 정부와 노동조합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2020/21년 7~6월 시즌에 대한 수출 쿼터제는 합의하였지만, 수출 할당량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최소한 8월 10일까지 연기되었다고 UGA 곡물 거래자 노조는 말하였다.

우크라이나와 곡물 상인들은 정부가 매년 합의된 곡물 양에 대해 수출 제한을 두지 않고 수출 규칙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각서에 서명한다. 경제부 장관은 지난 달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시즌에 대한 밀 수출 쿼터를 포함 시킬 것이며, 정부는 옥수수과 보리 판매량을 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대규모 밀 판매를 앞두고 여전히 협상을 벌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4위의 밀 수출국으로 지난해 2,830만 톤의 곡물을 수확하였지만, 악천후로 인해 올해 생산량이 약 2,500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부는 성명에서 “양국 간 식량안보 제공을 목표로 2020/21년 곡물시장 균형의 조화에 협력하고 수출제한 조치를 피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수확량 전망치와 수출 가능 물량은 기상여건의 난기류에 따라 8~9월에 계약할 수 있다.” 화요일에 경제부는 우크라이나 밀의 수출이 2019/20년 시즌에 31% 증가한 2,050만 톤을 기록하였고 2020/21년에는 수확량이 줄어들면 매출이 감소할 수 있

다고 말했다.

무역업자들은 지난 주 ‘농림부가 2020/21년 시즌에 밀 수출 한도를 1,720만 톤으로 정하자고 제안하였다’고 말하였다. 분석가들과 무역업자들은 이번 추수로 국내 시장에 아무런 위협 없이 약 1,800만 톤의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kraine delays setting export quotas for 2020/21 season(우크라이나, 2020/21년 시즌 수출 할당량 설정 지연)’ 「해외곡물 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7월 2일자 게재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47)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IV. 아시아

[중국]

1. (2020년 3월 5일) 각 유명 전망기관, COVID-19로 중국경제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 전망

COVID-19가 중국 내 빠르게 전파되는 가운데, 전 세계로 확산 중에 있다. 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내수위축, 생산차질 등에 따른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 과거 2003년 사스 발생 당시의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2003년 1/4분기에 11.1%였던 것이 2/4분기에는 9.1%로, 3/4분기에는 10.0%, 4/4분기에도 10.0% 정도로 축소되었던 바 있다.

내수위축의 영향도 예상된다. 도시 간 이동제한, 해외여행 금지,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서비스업(음식, 숙박, 여행, 도소매업 등) 및 소비 위축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해외 단체여행을 금지(2020.1.25.) 및 개별여행 자제령(2020.1.28.) 등을 시행하였다.

생산 및 수출 감소도 예상된다. 공장 가동 중지 및 가동률 저하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수출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춘절연휴 연장(2020.1.24.~30. → 2.9.) 등에 따른 공장가동 중지를 한바 있다. 2020.2.10일부터 공장가동을 재개하였으나, 근로자 출근율은 60% 수준이었고, 공장 가동률도 저하되었다. 이로 인해 2020년 1/4분기를 중심으로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IB들은 중국 1/4분기 GDP 영향을 당초 $\Delta 1\%p$ 내외에서 최근 $\Delta 2 \sim \Delta 3\%p$ 수준까지 추정하고 있으며, 바클레이즈는 5.8%에서 4.0%로, 노무라 연구소는 5.8%에서 3.0%로, 골드만삭스는 5.6%에서 2.5%로 각각 하향 조정하여 전망하였다.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태 지속기간 등이 관건인데, 최근 사태 장기화 전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비중 및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중국인 관광객은 전 세계 해외 여행객의 약 9%, 관광 지출액의 약 18%를 차지하며, 특히, 글로벌 벨류체인 상 중국경제 비중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경제/교역에서 중국경제 비중(% , IMF)은 2003년 4.3/5.6에서 2019년

16.3/11.8로 증가하였다.

IMF 등 주요기관들은 아직까지는 2/4분기 내 중국경제의 정상화를 전제로 중국 등 글로벌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다. 다만, 최근 IMF는 사태가 장기화되는 'L자형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며, IB들도 부정적 시각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 성장전망에 의하면, 3.3%에서 3.2%로 $\Delta 0.1\text{p}$ 조정하였으며, 그 중 중국의 성장 전망치는 6.0%에서 5.6%로 $\Delta 0.4\%$ 로 하향 조정하였다. IMF 및 월가 투자자들도 COVID-19를 가장 심각한 Risk 요인과 불확실성(Uncertainty)으로 인식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30-31

2. (2020년 3월) 중국 정부, 적극적 재정, 안정적 통화 발표와 더불어, 일부 지방정부는 생활보장 소득 및 보조금 형태로 지급

여기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주요국별 COVID-19 대응 및 조치' 「세계경제 포커스」, 2020.3.16.과 국회예산정책처,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경제적 영향' 「NABO Focus」 제15호, 2020.3.30.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697호, 2020.4.6.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예산지출 구조를 고도화하여 일반지출을 축소하고 방역자금의 투입을 확대할 방침이며, COVID-19로 인한 지원과 경제발전 수요를 고려해 재정적자 규모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하고 있다.

최근까지 발표된 중국 정부의 COVID-19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은 세금 감면 및 납부유예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사회보험료(의료보험 포함) 부담금에 대해 약 6,600억 위안을 지원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실물경제의 회복 지원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되, 금융시장의 합리적인 유동성 구간을 충분히 유지하고, 방역 중점지역·산업·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을 위해 대출이자 하향조정, 신용대출과 중장기 대출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 생활보장 소득 및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충칭시 충현(忠县)은 2만 4,000여 명의 저소득층(고아, 독거노인 등)에게 2,932.4만 위안의 생활보장소득을 지급하였다. 1인당 약 3,000위안 수준으로, 이는 최저생계비의 약 2배 수준이다. 산둥성 칭다오시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7,446만 위안 지원, 이 밖에 쌀, 밀가루, 야채, 계란 등 필수 식료품 등을 지원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 222

- 원문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세계경제 포커스」, 2020.3.16.

국회예산정책처,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경제적 영향' 「NABO Focus」 제 15호, 2020.3.30.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697호, 2020.4.6.

[일본]

1. (2020년 4월 28일) 일본 농수산성, 농림어업인 경영자금지원을 위한 농림어업 안전망(Safety Net) 자금 대출한도액 상향 조정, 이자율 감면 등 추진 및 식량 공급체인 전반에 걸친 가이드라인을 책정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4월 28일에 「令和元年度食料・農業・農村白書概要(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COVID-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일본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등의 휴교, 행사 자제, 외식·관광 수요 감소, 타 국가들의 입국 제한 등이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농림수산업·식품산업 분야에서는 급식용 농산물, 화훼, 소고기, 과일 등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농박(체류형 농촌관광) 등의 예약 취소, 외국인 노동자 입국 지연, 수출 감소 등 심각한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내 감염확대에 따른 영향을 바탕으로 COVID-19 대응 긴급대책을 2020년 2월·3월에 발표하였으며, 농림수산업·식품산업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함. 먼저, 농림어업인 경영자금지원을 위한 농림어

업 안전망(Safety Net) 자금 대출한도액 상향 조정과 이자율 감면 등의 추진이다.

고용조정보조금을 통한 종업원 휴업수당 등 지원, 각 업계의 보조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급식 납품 중지 등에 의한 미이용 농산물의 대체 판로 확보 지원, 급식용 우유를 탈지분유, 버터 등으로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원을 하고, 농촌관광지역에 COVID-19 예방대책 등 정보를 제공한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식량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식량 공급 체인 전반에 걸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다. 국민이 식량 공급현황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 농림수산물성 홈페이지에 특설 페이지를 개설하고, SNS 및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을 통해 식료품 공급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지방정책 국 등에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정보의 확산을 하고 있다.

한편, 식품산업사업자 등에게 원활한 식품 공급 요청 및 국민에게 과도한 사재기 자제를 요청하고, 식료품 공급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국산 농림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꽃 소비 촉진 프로젝트’, ‘국산 소비 촉진 캠페인’ 등도 추진한다. 꽃 소비 촉진 프로젝트는 COVID-19의 영향으로 감소한 화훼 소비를 늘리기 위해 꽃 소비촉진 운동이며, 국산 소비 촉진 캠페인은 COVID-19의 영향으로 감소한 국산 농림수산물 소비를 촉진하자는 운동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 20일에 COVID-19 감염확대 방지와 COVID-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긴급경제대책을 결정하였다. 생산기반 유지 및 수요 활성화를 위해 △농림어업인 등의 사업 유지를 위한 금융 지원, △노동력 확보 및 경영불안 대응, △생산·공급체제 유지를 위한 판매 촉진, △민관 합동 소비촉진 캠페인 등을 추진, 향후에도 각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여 유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24-225

- 원문 자료: https://www.maff.go.jp/j/council/seisaku/kikaku/bukai/kikaku_200428.html

2. (2020년 4월 30일) 일본 농림수산물성, 쌀, 밀, 콩, 옥수수 공급상황 공표, 곡물 공급에 문제 없어

농림수산물성은 4월 30일 「주요곡물의 공급 상황」을 발표하였다. 쌀은 ‘국내소비’는 거의 국산으로 충당되며, 비축은 확보하고 있다. 정부 비축은 약 100만 톤, 민

간재고는 약 270만 톤 정도이다.

밀은 주요 수입 대상국인 미국의 농업관계자에 의하면, 수출 인프라는 문제없이 기능하여 일본 수출용 브랜드도 재고가 풍부하다고 한다. 비축은 확보하고 있으며, 식량용 밀 약 93만 톤이 있다. 이 외에, 국산 밀 생산량은 연간으로 약 80만 톤이 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수출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로 부터의 식량용 밀 수입은 하고 있지 않다. 국제가격은 안정되어 있다.

콩은 상사에 의하면, 주요 수입 대상국인 미국에서 수출 인프라는 문제없이 기능하고 있다. 제품업체에 의하면, 원료, 제품 모두 수요를 충족시킬만큼 재고량이 존재하고, 국제가격은 안정되어 있다.

옥수수(사료용)의 경우, 미국농업성 관계자에 의하면, 주요 수입 대상국인 미국에서 수출 인프라에 기능 상 문제가 없다. 비축도 확보하고 있으며, 사료용 옥수수 약 84만 톤이 있으며, 국제가격도 안정되어 있다.

대체품으로써 고량, 보리, 밀, 대두박, 사료용 쌀 등도 존재한다.

〈그림 9〉 주요 곡물의 공급 상황에 대하여

主要穀物等の供給状況について

【コメ】

- ・国内消費はほぼ国産で賄われている。
- ・備蓄は確保。(政府備蓄約100万トン、民間在庫約270万トン)

【小麦】

- ・主要輸入先国である米国において、輸出のインフラは問題なく機能し、日本輸出用の銘柄も在庫が豊富にある。(米国農業関係者)
- ・備蓄は確保。(食糧用小麦約93万トン)
※この他に国産小麦の生産量約80万トン/年がある
- ・国際価格は安定している。
- ・ロシアやウクライナが輸出規制を行っているが、これらの国からの食糧用小麦の輸入はされていない。

【大豆】

- ・主要輸入先国である米国において、輸出のインフラは問題なく機能。(商社)
- ・原料、製品ともに需要を満たす在庫が存在。(製造メーカー)
- ・国際価格は安定し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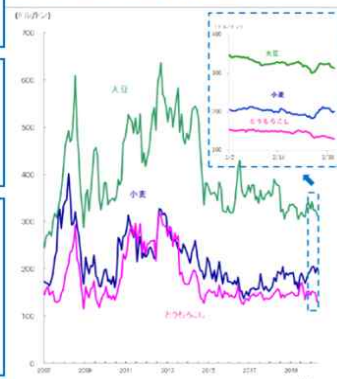
【とうもろこし(飼料用)】

- ・主要輸入先国である米国において、輸出のインフラは問題なく機能。(米国農業関係者)
- ・備蓄は確保。(飼料用とうもろこし約84万トン)
- ・国際価格は安定している。
- ・代替品として、こりゃん、大麦、小麦、大豆油かす、飼料用米なども存在。

○倉庫に保管されている国産米(4月9日)



○大豆・小麦・とうもろこしの国際価格の推移



출처: 농림수산성 발표자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하에서도 수입업무는 계속

또한, 4월 20일 기준으로 일본이 곡물 수입 상황에 대하여도 발표하였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하에서도 수입업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재외공관에 의하면, 미국은 주요곡물의 일본 수출용 공급량은 충분하며, 물류도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어, 일본 수출은 문제가 없다고 미국 곡물협회 등으로부터 확인하고 있다.

또 캐나다는 일본 수출용의 공급측면에서 문제와 영향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캐나다 농업·농산식료성 간부와 캐나다 각 품목농업단체(돈육, 캐놀라, 밀 등)로부터 확인하고 있다.

브라질은 국내수송, 항만에서의 선적 등 모두 현지점에서 눈에 띄는 지연 등은 볼 수 없다고 현지 일본계 기업으로부터 들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24-225

2. (2020년 7월 20일) 일본농연구기구(NARO), 위성 데이터 이용 적절 관개 시작 시기를 광역적·효율적 파악 방법 개발

일본 농연구기구(NARO)는 위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적절한 관개 시작 시기를 광역적·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최근 영농형태 변화에 따라 농업용수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용수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재검토에 있어서 농업용수 이용실태 조사가 필요하나, 대상 지역이 광범위하여 기존의 답사를 통한 조사는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농연구구는 2019년 지구관측위성으로 관측한 단파적외선밴드(Short-Wave-InfraRed Band) 데이터를 이용하여 농업용수 이용실태조사의 중요 항목인 논 관개 시작 시기를 광역적·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지구관측위성이 같은 장소에서 약 5일(평균 3일) 동안 관측한 데이터 중 맑은 날에 관측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논에 담수 상황을 판단하고, 각 논에 적절한 관개 시작 시기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담수 상황 판별 결과를 항공사진 육안판독결과와 비교한 결과, 이 기술의 판별 정확도는 9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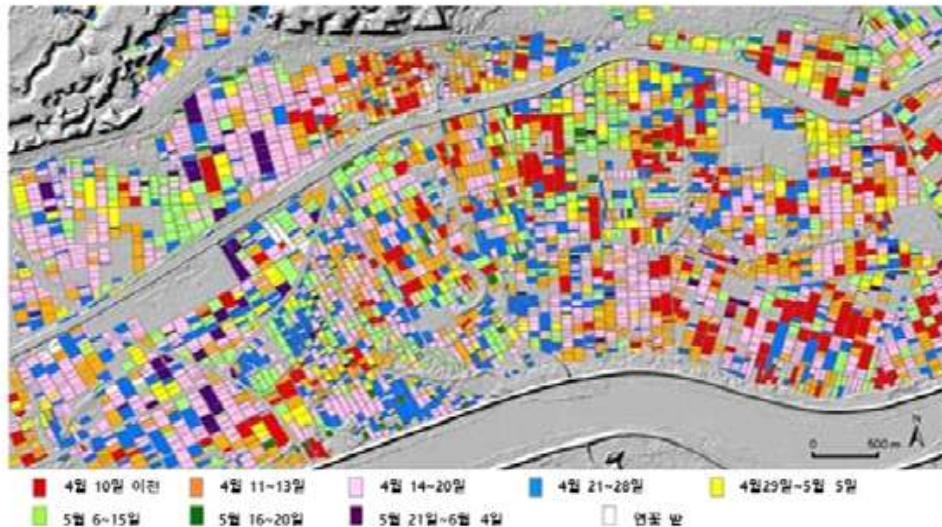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지구관측위성에 의한 맑은 날의 데이터만 이용 가능했으나, 이번 연

구를 통해 지구관측위성이 관측한 합성 개구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데이터도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합성 개구레이더 데이터에 의한 담수 상황 판별 정확도는 79%로 비교적 낮지만, 구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맑은 날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거나 관개 시작 시기를 세분화하여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보완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 기술은 무상 위성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용수 계획 재검토 및 농업용수 이용 실태 조사 등에서 활용 가능하다.

〈그림 10〉 위성데이터 기반으로 작성한 적정 관개 시기 지도(일본, 이바라기 현)

■ 위성데이터 기반으로 작성한 적정 관개 시기 지도(2018년 이바라기현) ■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vol. 29 (2020.7.20.)

** 원문 링크: http://www.naro.affrc.go.jp/publicity_report/press/laboratory/nire/135613.html

3. (2020년 7월 20일) 일본 농협신문, ‘코로나19에 의한 소비자 구매 행동 변화’ 조사 발표

여기에서는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에서 발표한,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よる購買・意識の変化を調査, 来店回数減も購入単価増」(2020.7.20.) 내용을 소개한다.

2020년 7월 16일 D&M²⁴⁾과 크로스ロ케이션²⁵⁾이 공동으로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소비자의 소비·의식 변화 조사²⁶⁾ 결과를 발표하였다.

코로나19 확산 후 일주일에 슈퍼마켓 이용횟수는 3일에서 2일로 감소하였다. 또한, 평일 낮에 이용자 증가에 따라 저녁 시간대에는 상품이 품절되는 경우가 늘었다.

코로나19 감염 확대 후 슈퍼마켓에서 지출 금액대가 2,000~3,000엔에서 3,000~5,000엔으로 증가하였으며, 구매 상품 수도 10개에서 15개로 증가하였다. 소비자 방문이 증가한 지점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높은 접근성, 다양한 상품을 한 번에 구매 가능, 다양한 식품으로 조사되었으며, 방문이 감소한 지점의 소비자 감소 요인으로는 매장 혼잡, 낮은 접근성,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대 전후로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유제품 구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저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편의점에서는 도시락, 과자·디저트, 드러그 스토어(drugstore²⁷⁾)에서는 유제품 및 물·음료, 온라인 쇼핑에서는 물·음료, 택배·배달 서비스(생협 등)는 신선식품 구매가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확대 이후 인터넷 구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편의점, 잡화할인점 등의 이용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vol. 30 (2020.7.27.)

－ 원문 출처: <https://www.jacom.or.jp/>

24) D&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조사 및 분석 기업

25) X-Locations Inc, 위치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클라우드형 플랫폼 제공 기업

26) 조사는 수도권(도쿄 도, 가나가와 현, 지바 현, 사이타마 현), 오사카 부, 아이치 현의 종합 슈퍼마켓 277점포에서 2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유효 샘플 수는 2,191건이다.

27) 의약품과 함께 식품, 생활용품 등의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점포

[태국]

1. (2020년 7월 23일) 태국 쌀수출협회 명예회장, “태국의 락다운은 물류를 중단시키고, 베트남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속에서 일시적으로 새로운 계약을 금지하여, 베트남의 이익은 일시적으로 수요에 의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 밝혀

태국 쌀 수출 협회는 가뭄과 바트화 강세로 인해 2020년 수출 전망치를 20년 만에 최저 수준인 650만 톤으로 하향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 2위 쌀 수출국인 태국에 대한 업계 그룹의 최근 전망치는 7년 만에 최저치인 2020년 750만 톤을 기록하였던 것보다 낮다.

협회는 다른 통화에 비해 강세를 보이는 바트와 가뭄 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비싸지고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 생산 시즌 태국산 쌀 생산량을 500만 톤 줄였다고 말하였다.

태국 쌀수출협회 명예회장 Chookiat Ophaswongse은 “새로운 전망치 650만 톤은 20년 만에 가장 낮은 물량”이라며, “올해는 힘들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태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가량 적은 314만 톤의 쌀을 수출하였는데, 이는 인도의 453만 톤과 베트남이 수출한 404만 톤보다 적은 수치이다.

Ophaswongse은 “태국의 락다운은 물류를 중단시키고, 베트남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속에서 국내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새로운 계약을 금지하여 베트남의 이익은 일시적으로 수요에 의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COVID-19는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수입업체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평소보다 더 일찍 구매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당분간은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태국 프리미엄급 자스민 쌀의 올해 판매량은 63%나 증가해 싱가포르, 홍콩, 미국, 캐나다 등 부유층 시장에서 공황구매로 이익을 얻고 있다. 한편 태국산 백미는 필리핀과 같은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베트남이 제시한 값싼 품질에 비해 구매력이 낮아졌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hai rice exporters cut 2020 forecast to 6.5 mln T, lowest in 20 years(태국 쌀 수출 업체, 2020년 전망치를 20년 만에 최저치

인 650만 톤으로 삭감)『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2020년 7월 23일자 게재(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86/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방글라데시]

1. (2020년 7월 12일) 내무부 장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Dhaka) 내에 무슬림 주요 축제 장소인 가축시장 개설 불허, 온라인 가축시장 설립도 고려

7월 12일 아사두자만 칸(Asaduzzaman Khan) 방글라데시 내무부 장관은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Dhaka) 내에 가축시장 개설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사두자만 칸 장관은 방글라데시에서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있지 못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카에 가축시장을 개설하는 것은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7월 말 열리는 이드 알아드하(Eid al-Adha) 축제는 무슬림의 중요한 축제 중 하나로, 해마다 방글라데시 다카에서는 축제 관련 제물로 사용될 가축시장이 개설되었다. 아사두자만 칸 장관은 그 대신 다카 외곽에 가축시장을 설립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방글라데시 당국은 온라인 가축시장을 설립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2020.7.14.)

- 원문 출처: Daily Observer, No cattle market will be allowed in Dhaka city: Home Minister(2020.7.15.) 등

[카자흐스탄]

1. (2020년 6월 4일) 카자흐스탄, 러시아 주도 종자 수출 금지 확대 반대

카자흐스탄의 농림부 장관 Saparkhan Omarov은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주도하는 무역권이 6월 30일까지 부과한 농업 수출 제한의 연장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뿐 아니라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먹이사슬에 차질이 생기자 자체 물량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해바라기씨, 메밀, 쌀, 호밀, 대두 등의 수출을 제한하였다.

Omarov은 “우리는 이 제한이 더 이상 연장되면 안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제한조치는 주요 농업시장인 밀의 경쟁국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간의 드문 시장협력 사례이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 2위의 해바라기 종자 생산국인 러시아는 9월 1일까지 해바라기 종자 수출 제한을 연장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일부 러시아 관리들은 석유 수출국 기구(OPEC)의 노선을 따라 곡물 기구를 만들기 위해 로비를 해왔다.

Omarov은 ‘곡물 OPEC’ 구상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미있는 구상이 될 수 있으며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곡물 가격이 날씨와 농작물 수확량에 의존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의 해상 접근성이 부족하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장애물이 있다고 말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올해 1,850만 톤의 곡물을 수확할 계획이며,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0/21년 시즌에는 750만 톤의 곡물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2019년에 1,740만 톤의 곡물을 수확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zakhstan opposes extension of Russia-led seed export ban(카자흐스탄, 러시아 주도 종자 수출 금지 확대 반대)’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6월 4일자 게재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294/page/3)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우즈베키스탄]

1. (2020년 7월 11일) 우즈베키스탄과 세계은행이 우즈베키스탄 농업 현대화 프로젝트를 위한 5억 달러 융자 제공 합의서 체결

7월 11일 우즈베키스탄과 세계은행이 우즈베키스탄 농업 현대화 프로젝트를 위한 5억 달러(6,015억 원²⁸⁾) 융자 제공 합의서 체결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 사르도르 우무자코프(Sardor Umurzakov)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투자통상부 장관이 참석하였으며, 세계은행 측에서는 릴리아 부룬치우치(Lilia Burnuciuc) 중앙아시아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우즈베키스탄 현대화 프로젝트를 위한 융자금은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과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로부터 각각 2억 7,600만 달러(약 3,319억 7,280만 원)와 2억 2,400만 달러(2,886억 7,200만 원)를 제공 받아 마련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농업은 GDP의 28%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노동 가능 인구의 27%(360만 명)가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물 수출은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포괄적 개혁 프로그램에서 농업 분야 개혁은 핵심 사안이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농업 개혁 목표는 노동 생산력 제고, 농업 수출 확대, 농업 현대화, 면화와 밀에서 벗어나 품종의 다양화를 이루는 것이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7.14.)

- 원문 출처: UZ DAILY, World Bank provides US\$500 million for agricultural modernization in Uzbekistan (2020.7.12.) 등

28) 원/달러 환율 1,202.8원 적용

V. 글로벌

1. (2020년 4월 23일) COVID-19 대응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 개최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가 4월 23일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COVID-19에 대응하는 한국의 농식품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주요 농산물의 불합리한 수출제한 자제를 촉구하였으며, 인간의 질병으로 변이할 수 있는 동물질병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회원국은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터키,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이다. G20 농업장관회의는 지난 2008, 2010년 국제 곡물가 폭등, 수출제한 등 국제 식량수급 불안이 가중되자 G20 정상회의에서 식량안보를 주요의제로 논의 시작, 2011년 최초 개최 이후 2017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회의는 COVID-19 장기화에 따른 전 세계 식품시스템 위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G20 회원국과 복원력 지원 및 위험 완화방안을 모색하고자, 식량안보에 미칠 COVID-19 영향에 대해 G20 국가들이 적극적인 선제 공동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주로 논의된 내용은 △주요 농산물 수출입 보장, △농업 및 식품 공급사슬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 △농업인 및 농식품 사업 종사자 지원방안 등이다.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글로벌 식품공급사슬의 기능 유지 중요성,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자제 필요성,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문에 합의하였다.

회원국들은 G20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AMIS²⁹⁾)에서 세계 식량 공급이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평가한 것에 주목하면서도, COVID-19 상황에 따라 계절근로자 노동력 부족 문제 등 글로벌 식품시스템의 흐름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G20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자는 데 뜻을 공유하였다.

현재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

29)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세계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세계 농산물 시장 정보 파악 및 공동 대처를 위해 2011년 G20 국가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역할·기능으로는 주로 밀·옥수수·쌀 등의 생산, 소비, 재고 등에 대한 시장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다.

나임을 인식하면서 회원국들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세계 농식품가치사슬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협력이 중요한 시점으로, 식량의 생산·유통·수출 과정의 투명성·개방성·예측가능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둘째, COVID-19는 보건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전염병 확산이 식량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동대응하고, 셋째, 중장기적으로 농식품 분야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COVID-19 관련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 공동성명문>

1. 글로벌 식품공급사슬의 기능 유지: G20 특별 정상회의 성명문에서 결의한 국경 간 식품, 제품 및 농식품 생산에 필수적인 투입재의 지속적인 이동 보장의 중요성 강조
2. 농식품 종사자들의 안전: 농업과 식품공급망 관련 종사자들의 건강, 안전, 복지와 이동성 보장을 위해 노력
3. COVID-19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의 적정성: 과학에 기반하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한시적이고, 목표에 부합한 조치의 시행, WTO 규범과의 합치성 및 농업과 주요 식자재와 관련된 무역 관련 조치의 WTO 통보
4. WFP(유엔세계식량계획) 및 기타 인도적 단체들의 비상업적, 인도적 목적 식품 구매 보장
5. 현재 글로벌 식량공급이 충분하다는 AMIS의 평가에 주목: 시장과 국가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식품시장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 제공
6. 농식품 부문의 신속·혁신적인 COVID-19 대응을 위한 공공 민간 협력
7. 공급사슬 붕괴로 인한 식량손실 및 식품낭비 절감 방안 강구
8. 인수공통전염병 통제 매커니즘 강화: 글로벌 식품시스템의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병해충, 이상기후로 인한 미래 발생 가능 재난 대비
9. 농업인, 농식품사업체의 위기상황 중 활동과 생계지원 및 향후 회복지원
10. FA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식량안보에 대한 COVID-19 영향 완화방안 모색, 모범사례 공유 및 과학 기반 정보 촉진, 농업과 식품시스템의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투자와 혁신 촉진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108-110

2. (2020년 7월 10일) FAO 164차 이사회, COVID-19 시대 국제 식량·농업협력 논의

지난 7월 10일 UN 식량농업기구(FAO) 제164차 이사회가 개최, COVID-19 이후 농업 분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의제는 FAO 예산 조정안, 산하 위원회 활동, '디지털농식품플랫폼' 설치, COVID-19가 식품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 논의 등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17-218

3. (2020년 4월 13일) 한국 국회예산처, 주요국 COVID-19 대응 현금지원 추진현황 자료 요약 정리

한국 국회예산처에서는 기관 발행지인 「NOBO Focus」 제17호(2020. 4. 13.)을 통해 주요국 COVID-19 대응 현금지원 추진 현황을 제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COVID-19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현금 지원 정책은 지원대상 및 규모가 다양하다.

〈표 7〉 주요국의 현금지원 사례(요약)

구분		주요 내용
미국 ¹⁾	지급대상·지급액	- 연소득 7.5만(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²⁾ 개인에게 1인당 1,200달러 ※ 소득기준 초과 시 초과소득 \$100당 지급액 \$5씩 차감 → 연소득 9.9만 달러(부부합산 19.8만 달러) 이상부터 지급 대상 제외 ※ 만17세 이하 자녀 1인당 500달러 추가
	지급수단·방식	- 현금 계좌송금 또는 수표 우편발송 ※ 국세청 세금신고서의 계좌·주소를 활용하여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지급규모	약 2,900억 달러 추산(최소 전 국민의 93.6% 이상이 수령 전망)³⁾
일본 ⁴⁾	지급대상·지급액	- 소득 급감 가구에 30만 엔 지급 ※ 소득 급감 기준: 50% 이상 감소 또는 주민세 면세점 이하로 감소 ※ 중학생 이하 자녀 1인당 1만 엔 추가
	지급수단·방식	- 현금 계좌송금 ※ 신청을 전제로 지급
	지급규모	약 4조엔 추산(총 5,800만 가구 중 1,000만 가구가 수령 전망)
독일		- 프리랜서·자영업자 및 10인 이하 사업자에게 3개월 운영비 지급 ※ 프리랜서·자영업자 및 5인 이하 사업자는 €9,000, 6~10인 사업자는 €15,000 상한 ※ 신청에 따라 선지급하되, 추후 현금흐름 어려움이 있었음을 입증 필요
프랑스		전년도 매출 €100만 이하인 프리랜서·자영업자 및 10인 이하 사업자 중 코로나19로 영업을 중지하거나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 €1,500(최대 €2,000) 지급
홍콩		전체 영주권자(개인)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 원) 지급
싱가포르		- 전 국민(개인)에게 소득에 따라 100~300싱가포르달러(약 85,000~260,000원) 지급 ※ 자녀양육자, 50세 이상 고령자, 저소득층은 추가 지원

주: 1) Tax Rebate로 명명하고 있으며, 2020.3.27. 근거 법률인 CARES Act(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가 의회의결 및 대통령서명 완료

2)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 미확정 시 2018년 소득 기준

3) Tax Foundation(미국 비영리단체), 「Congress Approves Economic Relief Plan for Individuals and Businesses」, 2020.3.30.에 따르면 납세자의 93.6%가 수령 전망, 그 밖에 비납세자 및 아동은 전원 수령하게 되므로 전 국민의 최소 93.6% 이상이 수령 전망

4) 생활지원임시급부금(生活支援臨時給付金)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2020.4.7. 정부가 공식방침을 발표한 후 후속조치 추진 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239-240

4. (2020년 3월부터 5월) COVID-19 확대에 따른 세계 식량안보 주요 동향

여기에서는 주요 일간지와 농업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COVID-19 확대에 따른 세계 식량안보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식량 위기 우려>

COVID-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교역이 차질을 빚자 국제 식량가격 변동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OVID-19의 팬데믹(세계적 선언)으로 영향이 본격화된 만큼 식량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가 위축되어 가격이 내리는 품목도 있는 반면,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 강세를 나타낼 품목도 생겨나는 상황이다. 러시아, 베트남 등 주요 곡물수출 국가들이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곡물 수출 중단을 잇따라 선언하면서, 식량 공급망과 농산물 무역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전망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 수출제한은 “저소득 국가에 피해를 주고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전달하려는 인도주의 단체에도 피해를 준다”며 “지금은 결속력을 보여주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세계 주요 동향>

인도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의 이동을 제한한 관계로 곡창지대 편자브 지방에서는 인력이 없어 밀 수확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태국은 쌀은 아니지만 자국 내 계란이 폭등하자 계란 수출을 금지하였다. 세계 1위 쌀 수출국인 인도에서는 쌀 무역업자들이 신규 수출 계약을 중단한데다, 2020년 4월 15일까지 국가보세령이 이어져 글로벌 식량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여전하다.

인도, 태국에 이어 세계 3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쌀 수출을 중단했으며, 캄보디아도 2020년 4월 5일부터 흰쌀과 벼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베트남은 2019년 중국, 필리핀, 아프리카 등지로 쌀 637만t을 수출하고 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지난 2020년 4월 6일 응우옌쑤언푹 총리에게 쌀 수출을 재개하되 4~5월 수출량을 80만 톤으로 한정하자고 제안해 중단했던 쌀 수출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곡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러시아 농산물감독청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열흘간 모든 종류의 곡물에 대한 수출을 임시로 제한하였다.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4월 말 120만 톤을 추가 수입해 비축, 식료품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아랍에미리트는 사재기 등을 방지하고, 전략적 식량 비축분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는 등 식량 확보에 나섰다.

주요 곡물 수출국인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은 COVID-19로 인한 국경 폐쇄와 방역으로 내륙·해상운송이 단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동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오는 수십만 명의 해외 노동자에게 농사를 맡겼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은 특히 올봄에 이뤄질 딸기와 블루베리, 아스파라거스 수확 등에서 당장 농사짓는 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손으로 직접 수확하는 과일과 채소의 경우 멕시코 노동자들을 주로 활용하지만, 전 세계 공관의 비자발급을 중단하면서 농업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식료품 사재기와 식당 폐쇄 등으로 우유, 각종 채소, 야채 등이 대책 없이 폐기하는 상황이다. 브라질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1만 명 넘어가면서 트럭 운전사마저 구하기 어려워 농산물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원맥), 원당의 글로벌 가격도 최근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국내 식품업체도 비상이다. 아직은 비축물량이 있는 데다가 주요 수입국 물류는 문제가 없는 상태로 내 업체가 타격을 입을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COVID-19가 장기화될 경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2020년 3월 27일 중국 농업농촌부는 기자회견에서 후베이성의 경우 농업생산에 일부 차질이 예상되어, 2억 1,000만 위안(363억 원³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COVID-19 여파로 닥칠 식량 수급 차질에 대비하는 조치이다. COVID-19로 중국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후베이성을 비롯한 4개 성(광둥, 저장, 허난, 후난)의 곡물 생산량은 1억 6,384만 톤(중국 국가통계국, 2019)으로 중국

30) 위안/원 환율 172.86원 적용

전체 곡물 생산량의 20%를 차지한다.

중국 정부는 2020년 4월 4일 “쌀 공급은 충분하고 어떤 사재기도 필요 없다”며 “중국은 1년치 식량을 저장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20년 4월 6일 21세기경제 보도는 2019년 중국의 식량 생산량과 비축량은 사상 최고 수준에 있으며, 식량안보 상에 문제는 없다고 보도하면서 다만, COVID-19로 인해 세계적으로 곡물 생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곡물 사재기 등으로 인한 가격 폭등 리스크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저지를 위해 2020년 3월 18일부터 국내외 이동을 제한하는 2주간 국가봉쇄를 결정하자 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로부터 공급받아왔던 각종 신선제품 이동도 막힐 수 있다는 우려로, 시민들이 슈퍼마켓을 찾아 채소나 과일 등을 집중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전망>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압둘리자 아바시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물자 이동이 어려워져 공급 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으로 예측 불가능하며,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라고 분석하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부 국가가 식량 수출을 중단하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상황이 악화하면서 재난 상황이 벌어지고, 기존 식량 수급 취약 국가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게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퍼듀대학 제이슨 러스크 농업경제학 교수는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그동안 식량 공급에서 트럭, 철도, 선적, 노동 인력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현재 식량 공급망을 단절할 요소는 준비하고 기존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로이터 통신은 국제 쌀 가격은 이미 추가적인 수출 금지 전망으로 인해 오르고 있다고 전하면서 쌀의 경우, 재고량이 사상 처음으로 1억 8천 만t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1억 5천 300만t 이상이 중국과 인도가 보유할 것으로 보여 불균형적이며, 이는 곡물 이동이 장기간 축소되면 쌀 수입이 많은 필리핀을 비롯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여러 국가가 충격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농작물 작황이 좋아 식량 재고가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현재의 곡물 시장 불안은 일시적이며 세계적인 식량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기도 하였다. 문제는 식량의 절대량이 아니라 ‘식량 정치’로 각국

이 식량 수출을 제한하고, 사재기에 나설 경우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위기를 만들 어낼 수 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경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COVID-19 사태 속에 국내 ‘집밥’ 수요가 일부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쌀 수요가 감소해 쌀 가격을 밀어올리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2020년 4~5월 쌀값은 약보 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만, COVID-19 사태의 진정으로 쌀 소비감 소가 완화될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323-328

- 원문 자료: 서울경제, “코로나19에 식량위기 오나”(2020.3.30.)

MBC, “코로나19에 식량 수출 금지 확산...“4~5월 식량위기 우려”(2020.3.31.)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에 식량 수출 금지 확산하나...‘식량 안보’ 주목”(2020.3.31.)

경향신문, “코로나19로 ‘집밥’ 늘었지만 쌀값은 ‘약보합세’...국제곡물시장 혼란 국내 영향 ‘미미’”(2020.4.2.) [특파원리포트]

KBS, “코로나19 가면 식량위기 온다”(2020.4.4.)

이데일리, “코로나19로 교역 차질...세계 식량가격 변동성 확대”(2020.4.4.)

디지털타임즈, “쌀 오르고 옥수수 내리고...코로나19에 세계식량 가격도 출렁”(2020.4.6.)

조선일보, “수확할 사람 없어 ‘식량대란’ 조짐”(2020.4.6.)

한국일보, “코로나19 사재기보다 심각한 문제는 폐기 농·축산물”(2020.4.6.)

동아일보, “코로나 식량 위기[횡설수설/이태훈]”(2020.4.7.)

아시아경제, “[코로나19] 직원 감염 잇따르자 미국 육류공장, 속속 조업 중단” / “싱, 코로나19에 식량확보 비상...호주 등과 공동 성명”(2020.4.7.)

아주경제, “[코로나19] 직원 감염 잇따르자 미국 육류공장, 속속 조업 중단”(2020.4.7.)

연합뉴스TV, “코로나19에 식량수출금지 확산...“4·5월 식량위기 우려”(2020.4.7.)

연합뉴스, “미국서 우유 대량폐기 사태...코로나19에 농가 직격탄”(2020.4.7.)

파이낸셜뉴스, “[특별기고] 코로나19로 바라본 식량 안보”(2020.4.7.)

KBS, “[팩트체크K] 코로나19로 쌀 부족한데 수출?...따져보니”(2020.4.8.)
 농민신문, “[경제산책] 코로나19가 가져올 식량위기에 즉각 대응하자”(2020.4.8.)
 머니투데이, “라면값 오르나요?...러시아 등 곡물수출 중단 영향은”(2020.4.8.)
 서울경제, “베트남, 쌀 수출재개 추진...글로벌 식량 부족에 ‘단비’”(2020.4.8.)
 아주경제, “주요국 곡물수출 중단 식품업계 가격인상으로 불똥 튀나”(2020.4.8.)
 한국경제, “멀쩡한 우유 수백만L 폐기...오렌지주스는 ‘코로나 특수’”(2020.4.8.)
 매일경제, “[기고] 코로나로 각국 식량비축...韓 곡물터미널 활용을”(2020.4.9.)
 연합뉴스, “농산물 수출규제 속출...코로나19에 식량안보 흔들릴라”(2020.4.9.)
 한국경제, “쌀값 7년 만에 최고...지구촌 ‘식량물가’ 출렁인다”(2020.4.9.)
 헤럴드경제, “김용범 기재차관 “주력업종 다양한 극복방안 마련 중...식량수급에도 선제대응””(2020.4.10.)

5. (2020년 3월부터 5월) 코로나 19로 노동력 구하기 각국 대응

COVID-19로 인한 이동제한으로 세계 각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코로나 귀농(歸農) 작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채우기 위해 자국민의 귀농을 독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농가 인력난이 심각해진 탓에 5월부터 콩과 옥수수 파종기가 시작되는 러시아에서는 일부 대학생이 수업 대신 귀농을 준비 중이며, 인테르팍스통신은 2020년 4월 29일 러시아 연해주(州) 농업국이 대학생 400명을 모집해 농촌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농가는 매년 파종기인 4~6월, 수확기인 10~11월 중국과 중앙아시아 노동자 수만 명을 고용해왔다.

디디에 기욤 프랑스 농업부 장관은 최근 TV에 출연해 “프랑스 농가는 일손 20만 명을 잃었다”며 “식당과 호텔 직원, 미용사 등 지금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프랑스 농업의 위대한 군대(농가)에 합류하라”고 호소하였다.

조지 유스티스 영국 환경장관은 2020년 4월 26일 코로나 브리핑에서 “영국 농가는 필요 인력의 3분의 1만 확보한 상태”라며 “무급 휴가 상태인 도시 노동자들이 농촌에 가서 과일과 채소의 수확을 도왔으면 한다”고 언급하였다. 영국은 2002.4

월 초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루마니아 노동자들을 특별 전세기로 데려오기까지 했지만, 2019년 7만 명에 달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빈자리를 채우기엔 역부족이다.

한국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끊겨 영농철을 맞은 농촌 지역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자, 각 지자체는 공무원과 각급 기관·단체에 “농번기까지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독려했다.

COVID-19가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에 의존한 세계 농업의 틀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기도 하였다. 자국 토지에서 자국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형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다우후이 중국 후난(湖南)성 로우디직업기술학원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나라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2020년 4월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곡물시장 영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COVID-19)에 따른 각국의 봉쇄 조치로 국제 식량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국에 단기적 수급 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다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한 곡물 비축시설의 확충과 의무 비축제도 도입 등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COVID-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글로벌 육류 가공업체인 타이슨푸드와 JBS, 스미스필드 푸드, 카길 등이 도살장과 정육 공장 폐쇄에 들어가면서 미국 아이오와 주 정부는 최근 농장 주인들과 함께 수천만 마리 돼지들을 대규모 안락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20년 4월 27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들 업체는 2020년 4월부터 미국과 캐나다를 아우르는 북미 지역 도살장과 가공 공장 20여 곳 운영을 중단했고, 타이슨 푸드의 존 타이슨 회장은 최근 도살장 폐쇄를 이유로 제휴 농장 돼지와 닭·소 수백만 마리를 안락사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대규모 정육 공장들이 폐쇄되면서 북미 지역에 베이컨과 햄 등 고기 부족 사태가 올 것으로 예고하기도 하였다. COVID-19 확산으로 미국 내 육류 생산 및 유통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식물성 원료로 만든 ‘인공육’이 새로운 대체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파인셀타임스(FT)는 2020년 4월 26일 미국 소비자데이터그룹 닐슨이 발표한 통계를 인용, 지난 2020년 4월 11일부터 18일동안 미국 내 식물성 육류대체품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00%, 지난 8주 동안 265% 증가했다고 보도하였다. 생산·유통과정에서 자

동화가 많이 이뤄진 식물성 육류가 도축장, 가공 공장 등에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진짜’ 육류에 비해 이동 제한령 및 봉쇄조치에 덜 취약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실제 시장에서 ‘식물성 육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진짜 고기에 비해 작지만, COVID-19로 인한 환경 변화※ 때문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p.p. 335-339

- 원문자료: 경향신문, “마트 삼겹살 사는 사람 늘고...식당 갈비 재고는 쌓이고”(2020.4.26.)

농민신문, ““감염될라” 비대면 소비 활기...정보 취약계층 ‘소외 그림자’”(2020.4.27.)

문화일보, “코로나에 판 커지는 美 대체육류 시장”(2020.4.27.)

아시아경제, “코로나發 강제 홈코노미 시대...간편식·핸드워시·담배 불티나게 팔렸다”(2020.4.27.)

연합뉴스, “코로나19에도 당장 곡물 수급불안 없어...비축시설 확충해야”(2020.4.27.)

매일경제, ““이 녀석들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이나요”...코로나탓에 美 닭·돼지 수백만마리 안락사 대란”(2020.4.28.)

조선일보, “지역상품권 1조7000억 풀렸다는데...상인들은 “구경도 못했다””(2020.4.28.)

한국경제, “‘고기대란’ 오나...대형 육가공업체 잇단 폐쇄 “공급망 무너진다”(2020.4.28.)

이데일리, “코로나 100일...유통가 소비 흐름 바꾼 ‘언택트’ 파도”(2020.4.29.)

조선일보, “비싸도 ‘동물복지 상품’이 잘 팔린다, 코로나가 바꾼 소비”(2020.4.29.)

아시아경제, ““장보기가 두렵다”...금값 된 달걀·돼지고기”(2020.5.1.)

news1, “코로나에 속타는 농심...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못 구해 발동동”(2020.5.2.)

조선일보, “프랑스도 러시아도 “농활 가실분”(2020.5.4.)

6. (2020년 6월 24일)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 대두 업계 관계자, ‘중국 대두 구매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없는 화물의 보증을 원한다’고 보고

중국 대두 구매자들은 수출업체에게 새로운 화물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서한에 서명을 요청하고 있다고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 대두 업계 관계자가 밝혔다.

중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베이징의 도매 식품시장과 관련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조치를 취함에 따라, 수입품으로부터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주 해외 육류 및 과일 공급업체들은 중국 세관총국이 중국으로의 선적 안전을 보장하는 선언문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미 농업부와 무역대표부는 육류 수출업자들에게 이 선언문에 서명할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하였다. 이 소식통은 미 농업부가 금요일 선주들에게 ‘서명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고 말하였다.

미국 대두 수출협회 회장 중국 국장 Zhang Xiaoping은 “대두 화물이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베이징이 아닌 세관총국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하였다.

브라질 수출곡물협회(Anec) 사무총장 Sergio Mendes은 “선박 적재 과정이 거의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Soy Canada 전무 이사 Ron Davidson은 “캐나다 정부는 이 상황을 민간 부문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수출업체들이 이러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대두 구매국이며, 2019/20년에 약 9,400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로 브라질과 미국에서 수입될 것이다. 대부분의 국제 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음식에서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porters say China soy buyers want guarantee of coronavirus-free cargoes(수출업자들은 중국 대두 구매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없는 화물의 보증을 원한다고 말해)’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뉴스/브리핑」 2020년 6월 24일자 게재(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28/page/2)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7. (2020년 7월 21일) 영국 분석업체 CRM Agricommties, 금년 국제 곡물 생산, 기상여건 악화로 부진 예상

하반기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올해 주요 생산국의 곡물 생산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영국 분석업체인 CRM Agricommties가 최근 발표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주요 생산지역에서 무더위와 강수량 부족이 길어져 올해 옥수수 생산이 부진하고, 밀의 경우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가 전년 대비 2.2%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유럽의 주요 옥수수 생산국인 프랑스는 기상여건이 나쁘지 않아 작황이 양호하고, 유럽에서는 현재 밀 수확도 진행되고 있어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RM은 최근 미국과 브라질 등 주요 생산국에서 코로나 신규환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장기화시 수확기 인력 및 장비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낙농뉴스」2020.07.02.호

- 원문출처; feednavigator.com, 7월 7일자>

8. (2020년 7월 16일) FAO, FAO,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식량난 경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발간(2020.7.16.)한 ‘북한 코로나19 인도적 대응 개정 보고서’에서 2020년 북한은 도정된 곡물 37만4천 톤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천 10만여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심각한 식량난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기본적으로 농업생산량이 부족한 데다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북중 간 물류 이동이 제한된 점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9년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북한 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엄격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물류 이동 역시 제한했으며, 북한 당국은 4월 초부터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 간 닫아뒀던 국경 문을 일부 열었지만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여전히 시행 중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하였다. 아울러 지난봄 영농기 농민들에게 비료, 씨앗, 관개용 펌프 등이 제대로 공급됐

는지 알 수 없으며 5월 모내기 작업이 끝났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북한에서 조기 수확 작물의 비중이 연간 8%에 그치는 만큼 쌀, 옥수수, 콩 등 주요 작물을 거둬들이는 가을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FAO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북한 내 식량 부족 사태는 분명히 가중될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2020년 FAO가 목표로 하는 대북지원 대상은 67만 6천 명이며 총 1천 345만 달러(약 162억 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앞서 FAO는 지난 2020년 7월 2일 발간한 ‘작물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비롯한 44개 나라를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20년 7월 14일 이탈리아 비정부기구(NGO) ‘아르고텍 SPA’의 대북지원 제재 면제 기간을 2020년 1월 15일까지로 연장해 각종 농기구 지원이 가능해졌다.

한편, FAO는 2020년 7월 21일 공개한 ‘세계 산림자원 평가 2020’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북한 산림면적은 603만ha로 지난 2010년 624만 2천ha보다 약 21만ha가 감소했다고 분석했으며, 지난 30년 동안 줄곧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vol. 30 (2020.7.27.)

－ 원문 출처: SBS, “FAO, 코로나발 북한 식량난 경고... “1천만 명 식량 부족””(2020.7.18.),

YTN, “FAO “北 1,010만 명 식량부족...‘코로나19’로 악화할 듯”(2020.7.18.)

new1, “FAO “北, 코로나로 식량난 가중...인도적 지원 필요”(2020.7.18.)

연합뉴스, “FAO, 코로나발 북한 식량난 경고... “1천만 명 식량 부족””(2020.7.18.)

중앙일보, “FAO, “코로나로 북한 주민 1000만 명 식량 부족 상태”...전 인구의 40% 수준”(2020.7.18.)

연합뉴스, “FAO “올해 북한 산림면적, 10년 전보다 21만ha 줄어””(2020.7.22.)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경제적 영향」 「NABO Focus」 제15호, 2020.3.30.
-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697호, 2020.4.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2020.7.8., 7.14 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주요국별 COVID-19 대응 및 조치」 「세계경제 포커스」, 2020.3.1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COVID-19 관련 자료 모음」, 2020.7.2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29 (2020.7.2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razil soy exporters cannot promise China coronavirus-free cargo s, ANEC says(ANEC은 브라질 대두 수출업체들이 중국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가 없는 화물을 약속할 수 없다고 밝혀)」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6월 26일자 게재(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32/page/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razil on grain exporting spree as port activity normal amid pandemic, says Anec(Anec은 브라질이 전염병 속에서 정상적인 항만 활동으로 곡물 수출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함)」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7월 1일자 게재(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4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razil buys Russian wheat after expanding ex-Mercosur quota(브라질은 메르코수르 지역 외에서 쿼터를 늘린 후 러시아 밀을 구입)」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7월 23일자 게재(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86/page/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rgentine grains exporters object to Chinese ‘Covid-19 free’ guarantee(아르헨티나 곡물 수출업자, 중국 ‘Covid-19 free’ 보증에 반대)」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7월 22일자 게재(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84/page/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 plans no grains export quotas July-Dec(러시아는 7월부터 12월까지 곡물 수출 쿼터를 계획하지 않음)」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6월 17일자 게재(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16/page/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 to make grain export quota mechanism permanent(러시아, 곡물 수출 할당량 메커니즘 영구화)」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7월 7일자 게재(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5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kraine delays setting export quotas for 2020/21 season(우크라이

나, 2020/21년 시즌 수출 할당량 설정 지연)’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7월 2일자 게재(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4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hai rice exporters cut 2020 forecast to 6.5 mln T, lowest in 20 years(태국 쌀 수출 업체, 2020년 전망치를 20년 만에 최저치인 650만 톤으로 삭감)’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7월 23일자 게재(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86/page/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zakhstan opposes extension of Russia-led seed export ban(카자흐스탄, 러시아 주도 종자 수출 금지 확대 반대)’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6월 4일자 게재(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294/page/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porters say China soy buyers want guarantee of coronavirus-free cargoes(수출업자들은 중국 대두 구매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없는 화물의 보증을 원한다고 말해)’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6월 24일자 게재(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28/page/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북방물류리포트」 제130호 (2020.6.5.)

KOTRA 해외시장뉴스, ‘폴란드, 코로나19 대응 경제규제 완화 중’ (2020.5.15)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낙농뉴스」 2020.07.02.호

브라질 SIF, 제3차 보고서(2020년 6월 16일 공표),
https://www.gov.br/agricultura/pt-br/assuntos/noticias/relatorio-mostra-andamento-dos-servicos-de-inspecao-e-fiscalizacao-de-produtos-de-origem-animal-no-pais/copy_of_3RelatoriodeatividadesSIF.pdf

브라질 가이드라인을 정한 합동 성령 제19호가 게재된 관보
<http://www.in.gov.br/en/web/dou/-/portaria-conjunta-n-19-de-18-de-junho-de-2020-262407973>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8月號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食肉・食鳥処理場の操業維持に関する大統領令に基づき, 米農務省が対応を講じる(米国)’,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號(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95.htm)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トランプ大統領, 食肉・食鳥処理場の操業継続を命じる大統領令を発出(米国)」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

691.html)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米国の大手食肉パッカー、相次ぎ操業停止’,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년 6월 6일,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78.html)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米中経済貿易協定の第1段階の合意と農業団体の声明(米国)」(令和 2년 1월 23일 발)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00.html)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년 7월 6일 南美 1番 情報)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97.html)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EU農産物・食品飲料団体ら、英EU・FTA交渉が難航していることにリスクが高まっていると懸念を表明. 「合意なし」の場合, 移行期間の延長, 代替案の措置を要求(1番の情報)」(2020년 1월 23일 발)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24.html)

일본농림수산성, ‘令和元年度食料・農業・農村白書概要(案)」, 2020년 4월 28일(https://www.maff.go.jp/j/council/seisaku/kikaku/bukai/kikaku_200428.html)

농림수산성, ‘주요곡물의 공급 상황’, 2020년 4월 30일

BelTA, Subbotin: Belarus' agricultural industry has been doing well this year (2020.7.6.)
Council for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CAST), ‘Economic Impacts of COVID-19 on Food and Agricultural Markets(2020.6.)

Farm Policy News, ‘A Closer Look at U.S. Pork Exports from USDA’s Economic Research Service(2020.5.19.)

PAPRI, ‘Early Estimates of the Impacts of COVID-19 on U.S. Agricultural Commodity Markets, Farm Income and Government Outlays’, 2020. April.

Project Syndicate, ‘Agriculture After the Pandemic’, 2020년 14. April.

USDA-ERS, ‘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2020.5.29.)

<외국 보도 자료>

USDA보도 자료(<https://www.usda.gov/media/press-releases/2020/06/09/americas-meatpacking-facilities-operating-more-95-capacity-compared>)

EU집행위원회 보도자료(Commission offers to all Member States possibility to extend CAP payments application deadline, 2020.3.17.),

EU집행위원회, ‘MONITORING EU AGRI-FOOD TRADE: DEVELOPMENTS JANUARY-MARCH 2020(2020.7.3.)

유럽연합 의회, ‘Protecting the EU agri-food supply chain in the face of COVID-19 (2020.4.)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보도자료(New measures on night time deliveries to supermarkets to support coronavirus response, 2020.3.9.)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New funding to support dairy farmers through coronavirus(2020.5.6.)

EU 농업전문지 IEG Policy 기사(Germany considers special measures to ensure seasonal farm labour, 2020.3.18.),

EU 농업전문지 IEG Policy 기사(Italy moves to protect agri-food exports amid COVID-19 outbreak, 2020.3.18.)

EU 집행위원회 보도자료(Coronavirus: Commission stands ready to continue supporting EU's agri-food sector, 2020.3.25.)

EU 집행위원회 보도자료(Coronavirus: seasonal workers included in new guidelines to ensure free movement of critical workers, 2020.3.30.),

EU 집행위원회, 'Meeting labour demand in agriculture in times of COVID 19 pandemic(2020.5.)

EU 농업전문지 IEG Policy 기사(Food industry turns to recruitment app to fill vacancies with "furloughed" staff, 2020.4.1.)

EU 농업전문지 IEG Policy 기사(Suppliers of fruit, veg and milk to EU schools can get COVID reimbursement, 2020.4.1.),

유럽투자은행 보도자료(Agriculture and bioeconomy: EIB approves €700 million of financing under the Investment Plan for Europe amid coronavirus pandemic, 2020.4.2.)

IEG Policy, 'Analysis: COVID-19 triggers acute farm labour shortages across Europe(2020.4.3.)

일본농업신문 「[新型コロナ] 政府、食料安保を強化 コロナ対応 国産切り替え推進」(2020.6.27.)

(일본)수상관저 「農林水産政策の展開方向について」(2020.6.26.)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よる購買・意識の変化を調査, 来店回数減も購入単価増」(2020.7.20.)

<국내 보도자료>

서울경제, "코로나19에 식량위기 오나"(2020.3.30.)

MBC, "코로나19에 식량 수출 금지 확산...4~5월 식량위기 우려"(2020.3.31.)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에 식량 수출 금지 확산하나...식량 안보' 주목"(2020.3.31.)

경향신문, "코로나19로 '집밥' 늘었지만 쌀값은 '약보합세'...국제곡물시장 혼란 국내 영향 '미미'"(2020.4.2.) [특파원리포트]

- KBS, “코로나19 가면 식량위기 온다”(2020.4.4.)
- 이데일리, “코로나19로 교역 차질...세계 식량가격 변동성 확대”(2020.4.4.)
- 디지털타임즈, “쌀 오르고 옥수수 내리고...코로나19에 세계식량 가격도 출렁”(2020.4.6.)
- 조선일보, “수확할 사람 없어 ‘식량대란’ 조짐”(2020.4.6.)
- 한국일보, “코로나19 사재기보다 심각한 문제는 폐기 농·축산물”(2020.4.6.)
- 동아일보, “코로나 식량 위기[횡설수설/이태훈]”(2020.4.7.)
- 아시아경제, “[코로나19] 직원 감염 잇따르자 미국 육류공장, 속속 조업 중단” / “싱, 코로나19에 식량확보 비상...호주 등과 공동 성명”(2020.4.7.)
- 아주경제, “[코로나19] 직원 감염 잇따르자 미국 육류공장, 속속 조업 중단”(2020.4.7.)
- 연합뉴스TV, “코로나19에 식량수출금지 확산...‘4·5월 식량위기 우려’”(2020.4.7.)
- 연합뉴스, “미국서 우유 대량폐기 사태...코로나19에 농가 직격탄”(2020.4.7.)
- 파이낸셜뉴스, “[특별기고] 코로나19로 바라본 식량 안보”(2020.4.7.)
- KBS, “[팩트체크K] 코로나19로 쌀 부족한테 수출?...따져보니”(2020.4.8.)
- 농민신문, “[경제산책] 코로나19가 가져올 식량위기에 즉각 대응하자”(2020.4.8.)
- 머니투데이, “라면값 오르나요?...러시아 등 곡물수출 중단 영향은”(2020.4.8.)
- 서울경제, “베트남, 쌀 수출재개 추진...글로벌 식량 부족에 ‘단비’”(2020.4.8.)
- 아주경제, “주요국 곡물수출 중단 식품업계 가격인상으로 불똥 튀나”(2020.4.8.)
- 한국경제, “멀쩡한 우유 수백만L 폐기...오렌지주스는 ‘코로나 특수’”(2020.4.8.)
- 매일경제, “[기고] 코로나로 각국 식량비축...韓 곡물터미널 활용을”(2020.4.9.)
- 연합뉴스, “농산물 수출규제 속출...코로나19에 식량안보 흔들릴라”(2020.4.9.)
- 한국경제, “쌀값 7년 만에 최고...지구촌 ‘식량물가’ 출렁인다”(2020.4.9.)
- 헤럴드경제, “김용범 기재차관 “주력업종 다양한 극복방안 마련 중...식량수급에도 선제대응””(2020.4.10.)
- 경향신문, “마트 삼겹살 사는 사람 늘고...식당 갈비 재고는 쌓이고”(2020.4.26.)
- 농민신문, ““감염될라” 비대면 소비 활기...정보 취약계층 ‘소외 그림자’”(2020.4.27.)
- 문화일보, “코로나에 판 커지는 美 대체육류 시장”(2020.4.27.)
- 아시아경제, “코로나궤 강제 홈코노미 시대...간편식·핸드워시·담배 불티나게 팔렸다”(2020.4.27.)
- 연합뉴스, “코로나19에도 당장 곡물 수급불안 없어...비축시설 확충해야”(2020.4.27.)
- 매일경제, ““이 녀석들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이나요”...코로나타트에 美 닭·돼지 수백만마리 안락사 대란”(2020.4.28.)
- 조선일보, “지역상품권 1조7000억 풀렸다는데...상인들은 “구경도 못했다””(2020.4.28.)
- 한국경제, ““고기대란’ 오나...대형 육가공업체 잇따 폐쇄 “공급망 무너지다”(2020.4.28.)
- 이데일리, “코로나 100일...유통가 소비 흐름 바꾼 ‘언택트’ 파도”(2020.4.29.)

조선일보, “비싸도 ‘동물복지 상품’이 잘 팔린다, 코로나가 바꾼 소비”(2020.4.29.)
 아시아경제, “‘장보기가 두렵다’...급값 된 달걀·돼지고기”(2020.5.1.)
 news1, “코로나에 속타는 농심...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못 구해 발동동”(2020.5.2.)
 조선일보, “프랑스도 러시아도 농활 가실분”(2020.5.4.)
 SBS, “FAO, 코로나발 북한 식량난 경고...‘1천만 명 식량 부족’”(2020.7.18.),
 YTN, “FAO “北 1,010만 명 식량부족...‘코로나19’로 악화할 듯”(2020.7.18.)
 new1, “FAO “北, 코로나로 식량난 가중...인도적 지원 필요”(2020.7.18.)
 연합뉴스스, “FAO, 코로나발 북한 식량난 경고...‘1천만 명 식량 부족’”(2020.7.18.)
 중앙일보, “FAO, “코로나로 북한 주민 1000만 명 식량 부족 상태”...전 인구의 40% 수준”(2020.7.18.)
 연합뉴스스, “FAO “올해 북한 산림면적, 10년 전보다 21만ha 줄어””(2020.7.22.)

<백과 사전 등>

네이버 영어사전,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농식품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대명AG, <https://blog.naver.com/qkdncl160317/221562169735>)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영양학사전, 채범석, 김을상, <https://terms.naver.com/>)

<자료 열람>

<https://www.jdsupra.com/legalnews/usda-s-coronavirus-food-assistance-32446/>
<https://farmpolicynews.illinois.edu/2020/05/a-closer-look-at-u-s-pork-exports-from-usdas-economic-research-service/#>
<https://www.ers.usda.gov/webdocs/outlooks/98517/aes-112.pdf?v=8070.4>
<https://www.cast-science.org/wp-content/uploads/2020/06/QTA2020-3-COVID-Impacts.pdf#page=5>
<https://www.cast-science.org/wp-content/uploads/2020/06/Ag-quickCAST-QTA2020-3-COVID-Impacts.pdf>
<https://www.columbiatribune.com/business/20200711/covid-19-causes-foodprices-to-move-in-opposite-directions-for-farmers-and-consumers>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mou-between-fda-usda-dpa.pdf>)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html>
<https://ec.europa.eu/jrc/en>

https://ec.europa.eu/info/index_en

http://www.naro.affrc.go.jp/publicity_report/press/laboratory/nire/135613.html

<https://www.jacom.or.jp/>

<https://ec.europa.eu/info/news>

Daily Observer, No cattle market will be allowed in Dhaka city: Home Minister(2020.7.15.)

UZ DAILY, World Bank provides US\$500 million for agricultural modernization in Uzbekistan(2020.7.12.)

feednavigator.com(7월 7일자)